

국 문 초 록

도서관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매체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의 새로운 정보 매체로서의 e-book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공공도서관이 지역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의 수월성을 제고한 e-book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e-book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서울시 강북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book의 효율성 및 이용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e-book에 대한 인지도가 약 89%인 반면 e-book 이용경험은 약 34%로 높은 인지율에 비해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포되어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e-book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이 높았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가 곧 e-book 서비스의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e-book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약 18%로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불만족 요인으로 63%의 응답자가 콘텐츠 부족을 들었으며, 공공도서관 e-book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약 9%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셋째,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 약 32%,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응답률이 약 31%로 각각 높게 나타나 e-book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e-book 이용방법 인지경로를 도서관 홈페이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약 41%, 사서 및 도서관직원을 통한 인지정도는 가장 낮은 약 7%로 조사되어 도서관의 직접적인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41%가 앞으로 도서관 e-book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포맷에 따른 뷰어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술 포맷 및 뷰어의 개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보다 이용이 편리한 단말기 개발을 통해 e-book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업체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공동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도 보다 폭넓은 정보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발 업체들의 자체적인 협력망 구축과 도서관과 연계된 이용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의 선택적 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 사서의 오프라인 홍보 및 전자책도서관과 연결된 온라인상의 바로가기 기능을 통한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지역중앙공공도서관과 연결되는 각 동의 마을문고, 구청 및 문화원 등의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e-book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클릭으로 도서관 e-book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 차

1. 서론	1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3 선행 연구	5
2. 도서관 e-book 산업의 발전과 현황	9
2. 1 e-book의 개념 및 특성	9
2. 2 e-book 산업의 기술 현황 분석	12
2. 2. 1 국외의 e-book 산업 현황	12
2. 2. 2 국내의 e-book 산업 현황	19
2. 2. 3 e-book의 기술 포맷	22
2. 3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e-book 서비스의 필요성 ...	28
3.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현황 분석 ...	33
3. 1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현황	28
3. 2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설문 조사	44
3. 2. 1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선정	44
3. 2. 2 설문 조사 방법	45

4.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	48
4.1 설문 조사 분석 방법	48
4.2 설문 조사 항목별 분석 및 고찰	50
4.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e-book 인지도	50
4.2.2 e-book 서비스 만족도	64
4.2.3 e-book 콘텐츠 만족도	71
4.2.4 e-book 홍보 만족도 및 이용의향	78
5. 결론	86
참고문헌	91
부록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전자책) 서비스 이용 증진 연구에 관한 설문지	97
Abstract	104

표 목 차

<표 1> e-book의 장점과 단점	11
<표 2> 미국의 e-book 역사	13
<표 3> 일본의 e-book 역사	17
<표 4> 국내의 e-book 역사	21
<표 5> 업체별 e-book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34
<표 6>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방식	39
<표 7> 공공도서관 e-book 구입비율 현황	41
<표 8> 공공도서관 e-book 콘텐츠 분야별 현황	42
<표 9>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45
<표 10> 설문지 문항 구성	46
<표 11> 유의도가 증명된 교차분석 문항	48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0
<표 13> 도서관 이용횟수	52
<표 14> 주제 관심분야	53
<표 15>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54
<표 16>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55
<표 17> 학력별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57
<표 18> e-book 이용경로	58
<표 19> 도서관 이용횟수와 e-book 이용경로	59
<표 20> e-book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60
<표 21> e-book 서비스의 장점	63
<표 22>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도	64
<표 23> 연령별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	67
<표 24> e-book 이용이 종이책보다 불편한 이유	70

<표 25> e-book 콘텐츠 만족도	71
<표 26> e-book 콘텐츠에 대한 요구	72
<표 27>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74
<표 28> 직업별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77
<표 29> 공공도서관 e-book 이용방법 인지정도	78
<표 30> e-book 이용방법 인지경로	80
<표 31> e-book 홍보 만족도	81
<표 32> e-book 홍보방법에 대한 요구	82
<표 33> e-book 이용의향	84
<표 34>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과 e-book 이용의향	85

그 립 목 차

<그림 1> e-book의 기술 포맷	27
<그림 2>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체계	35
<그림 3> ASP 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방식	36
<그림 4> 북토피아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37
<그림 5> 동사모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37
<그림 6> 위즈북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38
<그림 7> 전체 e-book 콘텐츠 분야별 평균 비율	43
<그림 8> e-book 이용경로	58
<그림 9>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사의 ‘Sigma Book’	61
<그림 10>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	66
<그림 11> e-book 서비스 불만족 이유	68
<그림 12> 종이책과 비교한 e-book 이용의 편리도	69
<그림 13> e-book 콘텐츠에 대한 요구	73
<그림 14>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75
<그림 15> e-book 홍보방법에 대한 요구	83
<그림 16> e-book 이용의향	84

1.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서 종이 인쇄매체의 전자적 변화는 출판변화의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출판의 변화는 출판업자, 독자, 그리고 도서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도서관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개발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환경에서 e-bo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필요성이다. 이용자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해서 시·공간을 넘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 개발과 정보의 검색과 축적, 폐기 등의 자유로운 매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보 서비스의 필요성이다. 온라인상에서의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를 확보함으로써 확보된 새로운 매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와 이러한 매체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는 2002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3년과 2004년에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도서관의 중심 정보 자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e-book서비스 확대와 수요 증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의 e-book서비스는 도입초기라는 걸림돌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없이 이미 제작되어진 몇몇 e-book 업체들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비스 방식은 다수의 공공도서관들로 하여금 지역적인 특색 없이 동일한 e-book 콘텐츠를 제공하게 만들었으며 각 도서관의 e-book 구축 예산 낭비는 물론 e-book 서비스의 이용증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e-book을 문헌정보학적 입장에서 도서관에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 및 도입 등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미비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에서는 e-book을 도입하여 서비스하는 것에만 급급하였으며, e-book의 이용증진에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e-book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연구한다. 그리고 e-book의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e-book 서비스 현황 분석 및 도서관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보이용의 수월성을 제고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에 관하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현재 공공도서관의 정보요구를 극대화하고 정보 이용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보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e-book을 통한 새로운 정보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도서관 환경의 변화 및 e-book과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는 e-book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e-book의 특성을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e-book현황에 대해서도 문헌조사방법과 국내외 웹 사이트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 운영주체가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각각의 공공도서관 '전자책도서관'홈페이지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e-book 콘텐츠 구입배경 및 기술 포맷, e-book 서비스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의 e-book에 대한 인식정도와 서비스 이용도, 만족정도와 불만족 이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e-book(electronic book)은 여러 가지로 약칭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OeBP에서 웹 사이트나 출판물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Book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동철¹⁾이 광의의 개념으로 '전자도서'로, 제수연²⁾은 '전자책'과

1) 광동철, "디지털도서관의 전자도서 서비스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39권 제4호, 2000. p. 5.

‘eBook’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전자책
컨소시엄(EBK)에서는 주로 전자도서(electronic book)를 e-book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e-book’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도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e-book’을 사용하도
록 한다.

2) 제수현. 「전자책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3.

1. 3 선행 연구

e-book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 및 출판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어 계속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훈³⁾은 21세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초고속 성장으로 기존 출판물의 유통체계 경로가 복잡한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매체 자체가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인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책(e-book)이 등장함으로 인해 정보전달 매체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자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기존 출판 유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자책이 종이책에 대하여 경쟁상태는 어떠한지, 진입장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책 출판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봄으로써 전자책 유통시스템의 발전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개인휴대단말기(PDA), 리더전용 단말기 등의 정보기기와 일반적인 단행본 형식의 콘텐츠를 그 대상으로 삼고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인쇄매체인 종이책과 전자책의 상호보완적인 성장 속에 전자책의 빠른 속도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제수현⁴⁾은 e-book의 현황 및 정책적 필요사항들에 대해 문헌 조사 방법을 통하여 출판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e-book 업체의 준비 및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book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통계 분석하였는데, 기술적 부분인 가독성에 대해

3) 김병훈. 「전자책(e-book)의 유통시스템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98 p.

4) 제수현. 「전자책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74 p.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과 기술포맷 및 저작권 보호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e-book 업체들의 전문화된 콘텐츠 구축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e-book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성대훈⁵⁾은 과거 전자책에 대한 연구가 출판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책의 기술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한 연구 등 미시적 연구에 국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전자책을 제작하는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자책 서비스 업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저작권, 기술표준안, 콘텐츠 수급 및 정부지원의 문제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점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시장조사 및 전화인터뷰를 통한 콘텐츠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전자책 서비스업체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디지털화, 휴대형 단말기 시장 활성화, 글로벌 마케팅 체계 수립, 전자책 산업 진흥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e-book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e-book 시장과 업체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과 유통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따라서 e-book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e-book 공급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2002년대에 들어서면서 업체를 통한 도서관의 e-book 도입이 시작되자 도서관에 실질적인 이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에 관해 모색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연구를 분석해 보면 김진아⁶⁾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실제 이용자가 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전자책에 대한 인식, 이용도, 문제점을 조사하고 서비스의 발전을 제언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

5) 성대훈. 「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92 p.

6) 김진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129 p.

에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전자책에 관한 인식은 부족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전자책 이용경험자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자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자책의 기술적인 문제와 콘텐츠, 관리업무 등의 문제로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화, 전공 서적류의 콘텐츠 확충,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사서의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출판된 “E-book Functionality”라는 연구에서 기본(Susan Gibbons)⁷⁾ 등은 e-book에 대한 개념, 발전 역사, e-book의 기능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과연 e-book이 도서관 발전의 한 모델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e-book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분석한 후 e-book의 미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랑스톤(Marc Langston)⁸⁾은 캘리포니아주 대학도서관에서의 NetLibrary e-book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논문에서는 출판된 e-book을 소개하였으며, 공유되는 전자적 학술논문의 수집 과정에서 협력적 차원의 수집·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연구와 더불어 논문 이용도와 주제별 이용도의 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e-book 이용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자적인 학술문헌의 수집과 공유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7) Susan Gibbons, et. al. *E-Book Functionality : What Libraries and Their Patrons Want and Expect from Electronic Book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 2003. 138 p.

8) Marc Langston.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book Pilot Project : implications for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7 No.1. 2004. pp. 19-32.

Chris Armstrong과 Ray Lonsdale⁹⁾은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e-book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학, 건강과 의약품, 사서들에 초점을 맞추어 e-book의 수준과 타입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e-book의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e-book의 선택, 접근, 성질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e-book에 대한 국가적인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9) Chris Armstrong and Ray Lonsdale. "Challenges in managing e-books collections in UK academic libraries."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9 No.1. 2005. pp. 33-50.

2. 도서관 e-book 산업의 발전과 현황

2. 1 e-book의 개념 및 특성

e-book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는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전자책 콘텐츠 또는 전자책 콘텐츠를 표시하는 단말기 시스템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OeBP(Open eBook Forum)¹⁰⁾에서는 “문자 저작물이 포함되어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고 열람되는 콘텐츠로서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식별자, 메타데이터, 콘텐츠 본문으로 구성되는 것, 또는 그 전자책을 읽기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기기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자책출판협회(KEPA)¹¹⁾에서는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또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CD-ROM, DVD 등의 전자책 기록매체, 또는 저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따라 강조하는 면이 차이가 있지만, e-book을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책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거나 각종 전자적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록매체가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책과 비교해 디지털기기에 담겨 있는 e-book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10) <www.openebook.org>. 2005. 1. 3.

11) <www.kepa.or.kr>. 2005. 1. 3.

12) Wikipedia web site: <<http://en.wikipedia.org/wiki/E-book>>. 2001. 1. 11.

먼저 e-book의 장점은 이미지화된 파일을 제외하고는 본문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 CD, 마이크로폼 등의 방대한 저장 공간은 서가공간의 부족이 큰 문제인 도서관에 있어서는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일정기간이 흐른 뒤 폐기해야 하는 종이책과는 달리 영구히 보존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며, 배포나 재생산 비용 등이 저렴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 열람이 가능하다. 음악, 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은 e-book이 지닌 큰 장점이기도 하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또는 어학 학습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웹상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소장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 수만 종에 이르는 책을 컴퓨터 한 대에 보관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화 돼 있어 PDA, 핸드폰 등의 휴대 단말기로 독서가 가능하다. 종이책 가격에 비해 40~50% 정도 저렴하며,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미래형 책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반면에 e-book을 열람하려면 PC나 PDA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고 도안이나 디자인 등의 구현이 종이책보다는 떨어지며, 직접 소장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종이책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직접 책장을 넘기며 독서하는 만족도를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e-book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콘텐츠의 구축 문제이다.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e-book은 방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얼마만큼 구축하느냐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e-book의 표준화와 저작권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13) 김승관. “전자책과 전자책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Vol.46 No.4. 2005. pp. 18-19.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도서관 환경의 추세에 e-book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e-book은 빠르게 실용화되어 지고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e-book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e-book의 장점과 단점

구 분	내 용
장점	• 이미지화된 파일을 제외하고는 본문 검색 가능
	• 하드디스크, CD, 마이크로폼 등의 방대한 저장 공간
	• 종이책보다 배포 등의 비용이 저렴
	• 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적음
	•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 열람
	• 멀티미디어 기능
	• 텍스트를 해독하여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사용 가능 시각장애인용, 어학 학습용으로 이용가능
단점	• 특정 기술이나 장치 필요
	• 소장하는 기쁨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음
	• 직접 책장을 넘기며 독서하는 만족도가 떨어짐
	• 도안이나 디자인 등의 구현이 종이책보다 떨어져 가독성이 낮음
	• 전자책표준화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
	• 다양한 콘텐츠 구축의 문제

2. 2 e-book 산업의 기술 현황 분석

2. 2. 1 국외의 e-book 산업 현황

국내와 국외의 e-book 산업 현황을 통해 e-book 발전 과정을 고찰해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e-book 산업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e-book 시장을 개척하고, 표준화 작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e-book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e-book 산업은 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었다. 1998년 10월 Nuvo Media사에서 세계최초로 e-book 전용단말기 'Rocket eBook'을 출시하였으며, 그 이후 Softbook Press사의 'Softbook', Librius사의 'Millennium Reader', Every book사의 'Every book'등 여러 업체에서 전용 단말기를 만들면서 e-book 시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⁴⁾

미국의 e-book 출판역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4) Susan Gibbons, et. al.. *E-Book Functionality : What Libraries and Their Patrons Want and Expect from Electronic Book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pp. 3-4.

<표 2> 미국의 e-book 역사

날 짜	내 용
1998년 10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후원으로 제1회 ‘세계 전자책 심포지엄’ 개최 -4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자책 표준안(OEB: Open eBook)의 추진안 발표
1999년 1월 6일	Nuvomedia, Softbook Press, Microsoft 사가 OEB 스펙 제안
1999년 1월 28일	OEB를 위한 제1차 세미나 개최 -전자책 표준안 추진위원회(OEB Standard Initiative Authoring Group)결성
1999년 4월 1일	OEB를 위한 제2차 세미나 개최 -수정된 표준안 스펙 발표
1999년 9월 21일	OEB 추진위원회에서 OEB 버전 1.0 스펙을 발표
2000년 1월 13일	OEB 추진위원회와 기타 30여개 관련 업체와 기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표준 전자책 협의체 (OEBF:Open Electronic Book Forum)결성
2000년 3월 27일	제1차 OEBF 정기 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출판계의 대응방향 및 전자출판 저작권 문제 등을 협의
2000년 5월 28일	제1회 전자책 포럼 개최
2000년 10월 31일	EpubExpo 개최
2000년 11월	eBook World 개최
2001년 6월	OEBPS 1.0.1 스펙 발표
2002년 8월	OEBPS 1.2 발표
2003년 4월	MPEG-21 REL 권리와 규칙에 관한 문서 규정 발표 -출판사, 기술자, 사서, e-book 협회 등의 Rights & Rules Working Group에 의해 발표

2004년 3월	‘eBook in the Public Library Conference’ 개최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내용 및 예산문제, 저작권 등에 관한 세미나
2005년 4월	‘eBook in the Education Conference’ 개최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 보충 교육자료 등의 교육용 e-book에 관한 세미나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0. p. 39
와 OeBF(Open eBook Forum)의 웹 사이트 “<http://www.openebook.org>”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미국의 e-book 발전 과정은 1998년 제1회 세계전자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전자책 표준안(OEB: Open eBook)이 발표되면서부터다. 1999년에는 전자책 표준안(OEB)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전자책 표준안(OEB) 버전 1.0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1년 6월에는 OEBPS 1.0을 발표하고, 2002년 8월에는 OEBPS 1.2를 새로이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e-book이 생산되는 전기를 만들었다.

1999년 1만 3천권에서 2000년 3만 8천권, 2001년 10만 2천권, 2002년 22만 5천권, 2003년 45만 7천권, 2004년 97만 4천권으로 연평균 136%의 성장률¹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book의 유통은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이 e-book 단말기 관련 회사와 제휴를 맺고 포털 사이트를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 규모가 큰 70여개의 출판사들의 책을 디지털화하여 판매하기 위해 전자책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판매되는 전자책의 형태도 일반 PC나 PocketPC등에서 MS Reader, Acrobat Reader등의 viewer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로 구성된 전자형태가 있고, 특정 PDA나 전자

15) 한국 e-book 산업협의회. 「한국 e-book 백서」. 서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p. 3.

책 전용 단말기 용 파일들도 있으며, MP3형태의 오디오 북으로 판매 되는 형태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전자책 공급 업체는 Netlibrary, Evrary, Sadari, Gemstar-eBook, eBookad, eBooks 등이 있으며 온라인상을 통한 전자책 공급뿐 아니라 전자도서관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 혹은 특정 전문분야의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들과도 협약을 맺고 있다. 서비스 대상도 도서관을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¹⁶⁾

Questia사는 대학 도서관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자 도서관과 리서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Everybook사는 교육 관련 출판사 Continental Press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NetLibrary사는 기존의 도서관 및 출판사와 계약하여 온라인상에서 e-book을 판매 및 대여하는 서비스를 게시하였고, Nevada의 Novelon Inc.는 전자책 사용을 최대화하는 가상 도서관 서비스를 게시하였다.¹⁷⁾

이처럼 대표적인 e-book 단말기 회사나 e-book 판매 업체 등이 e-book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상도서관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전자정보서비스는 획기적인 개선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e-book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을 비롯한 출판사와 기술자, 그리고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OEBF를 통해 e-book 관련 세미나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16) 김진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 63.

17) 문화광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2000. p. 42.

(2) 일본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은 출판 산업에서도 1997년 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 불황 돌파를 위한 전략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웹 비즈니스 방법 중에 종이책·e-book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CD-ROM 형태의 출판물이 많이 등장하였고, 90년대에 소니사의 데이터 디스크맨, NEC의 디지털북 등 CD-ROM이나 디스크를 매체로 한 단말기들이 시장에 출시된바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e-book은 대부분 PC나 PDA에서 Acrobat Reader, Expand Book Reader, Book Reader등의 뷰어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파일들로서, 다양한 장르의 e-book이 있으나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의 유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¹⁸⁾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전 출판물의 70%를 만화가 점유하고 있다(미국은 12%). 우리나라의 만화 시장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만화도 일반 서적처럼 구매하여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환경이 이러다보니 일본의 e-book 시장은 기본적으로 만화 콘텐츠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⁹⁾ 따라서 PDA를 통한 e-book 시장에는 한계가 있어 종이책과 유사한 전용단말기의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e-book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8) 문화광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2000. p. 43.

19) 오익재. 「돈되는 e-콘텐츠」. 서울 : 형설출판사, 2002. pp. 327-328.

<표 3> 일본의 e-book 역사

날 짜	내 용
1986년 7월	일본전자출판협회(TEPA) 창립 -일본의 전자 출판의 보급 촉진과 각종 정보의 제 공을 목적으로 창립
1990년 7월	SONY 데이터 디스크맨 출시 (8cm CD-ROM)
1991년	일본전자책위원회(EBXA) 구성 -전자책(8cm CD-ROM) 타이틀의 보급을 목적으 로 구성
1991년 10월	EPWING 컨소시엄 구성 -CD-ROM 사전 검색을 목적으로 한 EPWING 규 약의 보급을 목적으로 구성
1993년	NEC 디지털북 출시 (플로피디스크)
1998년 10월	일본전자책컨소시엄(JEC) 구성 -전자 서적 시스템의 사양 검토와 프로모션 활동 을 목적으로 구성 -컨소시엄 단말기를 사용한 전자책 실증 실험
1999년 9월	JEPA가 전자출판물 표준 교환 형식 JEPAX 1.0 발표
2000년 12월	소니, 간사이 등 4개사 합작으로 광대역 웹 캐스팅 을 경유한 e-book 서비스 시작
2003년 11월	소니, 신초사 등 15개 기업 e-book 전문 출판사 공 동설립 발표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
전자책컨소시엄(EBK), 2000. p .44.와 Japan Times Online "<http://japantimes.co.jp>"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일본의 e-book 산업은 주로 1986년 7월 일본전자책출판협회(JEPA: Japanese Electronic Publishing Association)가 창립된 이래 일본의 전
자출판 보급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본의 e-book산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일본전자책위원회(EBXA)가 설립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 주요 출판사와 전자, 통신, 서점, 신문사, 유통회사 등 각 분야의 총 145개 사가 일본전자책컨소시엄(JEC)이 창설되었다. 일본전자책컨소시엄(JEC)은 전자 서적 시스템의 사양 검토와 프로모션 활동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단말기를 사용한 e-book 실증 실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9년 9월에는 일본전자책출판협회(JEPA)가 전자출판물 표준 교환 형식인 JEPAX 1.0을 발표하였다.

현재 일본은 e-book 뷰어를 탑재한 기존의 PDA, Pocket PC 등이 강세를 이루고 있으며, 전자책 전용 단말기로는 e-book 실증 실험에 쓰였던 컨소시엄 e-book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단말기 업체로는 소니, 파라소닉 등이 있으며, PDA보다는 판형면이나 가독형면에서 종이책과 흡사한 전용 단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 출판시장에서 2002년 e-book 시장은 10억엔까지 급등하였고, 약 2만 5천여권의 e-book이 유통되고 있다.²⁰⁾ 또한 소니를 비롯한 15개 일본기업이 인터넷망을 통한 e-book 전문 출판사를 공동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소니에서는 가로 세로 12x15cm짜리 e-book 전용 단말기를 개발했다.²¹⁾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책 공급 업체로는 파브리, 파피레스, 프랑켄, 망가나라 등이 있다. 파브리는 다양한 장르의 e-book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피레스는 PDA등 전자책도 판매하고 있다.

20) The Japan Times Online-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n20030802b3.htm>(2003. 8. 2)의 “EBook market hit 1 billion yen in '02” 기사 인용.

21) The Japan Times Online-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b20031114a2.htm>(2003. 11. 14)의 “Sony forms e-publishing joint venture” 기사 인용.

2. 2. 2 국내의 e-book 산업 현황

국내의 e-book 시장은 90년대 후반 바로북닷컴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북토피아, 드림북 등 10여개의 e-book 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키온, 한국전자북 등의 업체들이 e-book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e-book 서비스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용 단말기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표준 형식이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PDF 형식과 각 업체들의 개별적인 뷰어들로 서비스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e-book 관련 단체로는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Electronic Book Korea)²²⁾이 있다. 한국전자책컨소시엄은 미국의 일본의 경우보다는 뒤늦은 2000년 9월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구성되었으며 e-book 관련 단체 및 업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발족되었다.

국내 인터넷 e-book 서비스 업체는 바로북이 1998년 8월에 최초였으며, 그 이후 2000년대에 오면 와이즈북, 에스24, 한국전자북, 북토피아, 드림북 등의 업체들이 e-book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문화관광부 지원하에 설립된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중심의 e-book 전문기구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국고 10억원의 연구자금이 한국전자책컨소시엄에 지원되면서 e-book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3월에는 제1차 한국 전자책 문서 표준화 포럼이 개최되고 이곳에서 표준포맷 'EBK 0.9' 버전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22)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 Electronic Book Lorea) : 범정부 기관 및 민간 관련기업이 망라된 민간 중심의 e-book전자책 집중논의기구로서 설립되었다. e-book의 조기 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조정 및 공동 협력, 정보교류 및 표준화,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 및 교육 등 e-book에 특화된 공공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ML 기반의 한국형 전자책 문서 포켓 표준 'EBK 1.0'이 제정되었다.

e-book이 등장했던 초기에는, 출판사 측에서 e-book의 매출이 출판사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콘텐츠 제공을 기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e-book이 PDA 등의 기기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파고들고, B2B 매출을 통해 출판사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book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출판사들이 크게 늘어났다.²³⁾

2001년대에는 서비스업체인 북토피아가 월정액(1만원) 유료 서비스 회원이 6천명을 돌파하였고, 드림북의 경우 60여개 학교 및 대학·공공 도서관 등에 e-book을 대량 납품 하는 등 초기적 성공사례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단계의 성공 사례들에 대한 기대는 2002년이 되자 IT 산업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e-book 업체들은 서서히 사라지거나 관련 업체간에 M&A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북토피아와 와이즈북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e-book 서비스 시장은 과거의 다수의 업체들이 사라지고 업체들간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몇 개의 업체들 즉 바로북, 북토피아, 조은커뮤니티 등에 의해 표준화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04년 8월에는 한국전자출판물협회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 인증시스템을 가동하여 출판물의 제목, 제작사, 자료 형태 등을 담은 표준화된 코드가 함께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2월 국내의 e-book 콘텐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e-book 업체 바로북과 북토피아 그리고 솔루션 업체 에피루스가 EBK에서 “전자책 저변과 시장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e-book 콘텐츠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²⁴⁾

23) 김범수. “도서관에서의 상업적 전자책 수서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제30호. 2003. p. 37.

국내의 e-book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국내의 e-book 역사

날 짜	내 용
1998년 8월	바로북이 최초로 인터넷상에서 e-book 서비스 실시 -2000년 와이즈북, 예스24, 한국전자북, 북토피아, 드림북 등에서 인터넷 e-book 서비스 실시
2000년 9월 7일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Electronic Book Korea) 창설 -전자책 관련 업체 및 출판계, IT업계 공조체계 운영
2000년 12월 13일	EBK 표준화위원회 위킹그룹(정보그룹) 제1차 회의 개최 및 활동 시작
2001년 3월 15일	제1차 한국 전자책 문서 표준화 포럼 개최 -한국형 전자책 문서 포맷 표준 'EBKS 0.9' 버전 발표
2001년 6월 5일	EBK 1.0 제정 -XML기반의 표준 포맷 제정
2004년 8월	한국전자출판물협회 온라인 전자출판물 인증시스템 가동 -출판물의 제목, 저작사, 자료 형태 등을 담은 표준화된 코드가 함께 등록
2005년 2월	EBK에서 바로북, 북토피아, 에피루스 “전자책 저변과 시장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 체결 -북토피아와 바로북은 e-book 콘텐츠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e-book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e-book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많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24) 전자신문(2005. 2. 18)의 “전자책 대표기업 ‘의기 투합’” 기사 인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 부분에서는 일찍 그 필요성을 자각하여 표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e-book 서비스 업체들도 각 업체에 맞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e-book 전용 단말기 뷰어 등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해왔지만 e-book 서비스 업체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e-book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는 미약하지만, 단말기 분야와 DRM(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²⁵⁾

2. 2. 3 e-book의 기술 포맷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전자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도서관 환경의 변화로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e-book의 포맷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각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는 e-book의 포맷에는 XML, HTML, PDF, Flash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맷으로 e-book을 배포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포맷이 공존하면 각 포맷마다 다른 뷰어가 필요하고, 각기 여러 종류의 포맷 변환 프로그램과 뷰어가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e-book의 포맷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e-book의 향후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5) 김진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 68.

현재 많이 사용되는 e-book 기술 포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HTML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인터넷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문서 양식이다. 따라서 HTML은 다수의 사용자와 제작자들이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간단한 언어이기 때문에 e-book을 제작하기 위한 포맷 방식으로는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HTML의 단점으로는 개발자들 임의로 태그를 확장할 수 없으며, 논리적인 구조 정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일 정보와 논리적인 구조를 분리하지 않아서 스타일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정보의 재사용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HTML은 현재 웹이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2) PDF

PDF는 미국의 Adobe사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페이지 기술언어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 기반의 포맷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여주기 위한 파일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DF의 특징이자 가장 큰 제약은 오직 Adobe사에서 배포하는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을 viewer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PDF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은 마치 문서를 인쇄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다만 인쇄하는 곳이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PDF는 임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문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인쇄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DF로 생성한 후에는 수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문서 작성 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특성상 XML과 HTML에 비해 크기가 일반적으로 크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PDF 방식으로 e-book을 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PDF는 페이지 단위로 제작되어 웹상에서 페이지 단위로 볼 수 있으며, 비트맵과 벡터 이미지로 이루어져 사운드와 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종이책과 같은 판형과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출판물들, 특히 편집이 복잡한 컴퓨터 책이나 미술서적, 이미지가 많은 서적들은 맥용 DTP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므로 PDF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²⁷⁾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crobat Reader가 유일한 viewer로 기능 확장 불가능하여 범용성이나 호환성 면에서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e-book 표준 포맷으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3) XML

XML은 HT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W3C에서 정의한 표준 언어로 미국, 일본 뿐 아니라 국내의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에서 제안한 한국 전자책 문서 표준(EBKS)이다.

PDF가 ‘보여주기 위한 파일형식’이라 한다면, XML은 ‘내용중심의

26) 성대훈. 「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p. 62.

27) 한국전자책컨소시엄. 「출판계의 새시장 전자책 출판」, 2001. p. 28.

파일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XML로 제작된 e-book은 viewer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주기가 가능하며,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내용과 스타일의 분리가 가능하여 다른 목적으로 문서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문서작성 시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는 PDF와 달리 내용과 본문만을 채택함으로 사이즈 면에서 적은 용량을 차지해 온라인 유통에 적합하다.

XML의 단점은 서체나 도표의 표현 등에서 다채로운 레이아웃을 담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저작, 변환도구의 개발이 미비하여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코렐은 2가지의 XML툴을 개발하였는데 하나는 XML 데이터를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스마트 그래픽 스튜디오'(SGS)로 지도나 건축설계도 같은 '스마트 이미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 하나는 'SVG'(Scalable Vector Graphics)로 스마트 SGS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력 포맷이라 할 수 있다.²⁸⁾ 또한 국내 기업 아이티로직스에서는 XML에 대한 고급지식이 없어도 XML 문서를 편집, 수정, 저장할 수 있는 전문 에디터 '넥스웹(NexWeb V1.2)'을 출시하였다.²⁹⁾ 이러한 코렐, 아이티로직스 등의 새로운 기술은 다양한 레이아웃 표현이 힘들었던 XML의 단점을 보완하고 XML을 이용한 콘텐츠 작성 환경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8) 디지털 타임즈(2002. 12. 13)의 “코렐, XML 관련 제품 2종 출시 계획” 기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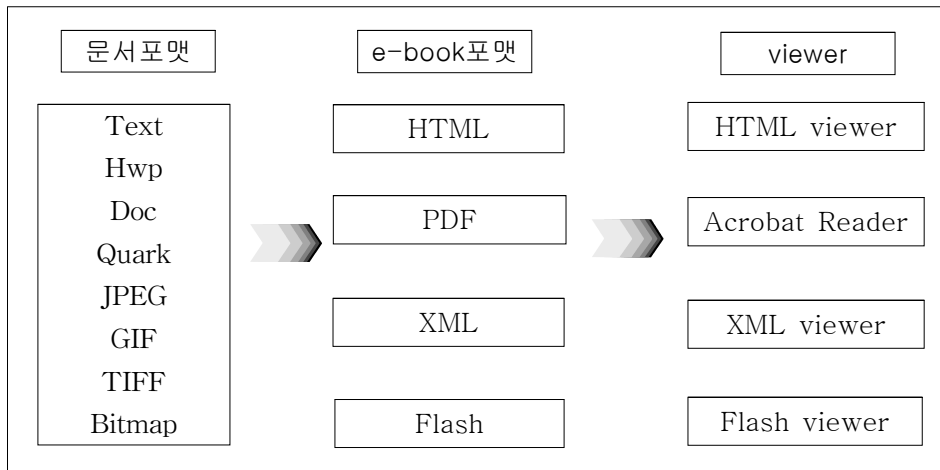
29) 디지털 타임즈(2003. 3. 5)의 “아이티로직스, XML에디터 출시” 기사 인용.

(4) FLASH

플래쉬는 MacroMedia사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웹 저작도구로 최소한의 사이즈로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특이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래쉬는 애니메이션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역동적인 애니메이션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e-book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아동물 즉,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e-book 제작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며 페이지의 자동 넘김 기능과 사운드의 켜고/끄기 기능, 반복재생 기능 등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e-book의 기술 포맷을 살펴본 것과 같이 Text, Hwp, Doc 등의 문서 포맷들과는 달리 HTML, PDF, XML, Flash 등으로 구현되어진다. 이러한 기술 포맷으로 구현된 e-book을 보기 위해서는 각 각의 기술 포맷에 맞는 뷰어가 필요하며, HTML의 경우는 HTML viewer, PDF의 경우는 Acrobat Reader, XML의 경우는 XML viewer, Flash의 경우는 Flash viewer가 필요하다. 이 중 XML은 현재 세계적으로 e-book 표준 문서 포맷을 위한 표준 언어로 제안되고 있으며 HTML 및 PDF로 제작되던 과거와는 달리 XML로 제작되는 e-book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작 기술에 대한 표준 작업은 e-book의 가장 큰 단점인 기술 포맷에 따른 뷰어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XML로 표준화된 e-book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e-book의 기술 포맷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e-book의 기술 포맷

2. 3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e-book 서비스의 필요성

e-book 업체들의 기술은 초창기 딱딱한 텍스트만 보여주던 것에서 벗어나 책 모양 그대로를 화면에 담고 책장 넘기는 소리, 사전 기능은 물론, 배경음악과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초·중·고, 대학교는 물론 각 지역에 있는 많은 공공도서관도 전자책도서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트만 찾으면 어렵지 않게 전자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오프라인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많지만, 간단하게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바로 책을 빌려주는 곳도 많다.³⁰⁾ 이러한 e-book 콘텐츠 구축 업체들은 1997년 PC통신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바로북닷컴을 시작으로 현재는 북토피아, 위즈북, 아리수미디어, 동사모 등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에까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의 필요성으로는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도서관으로 탈바꿈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디지털도서관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저장매체의 등장으로 출판물은 전자적인 물리적 공간의 확보로 공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공간 즉, 사이버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출판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e-book을 탄생시켰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종이책 유통을 인터넷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켰으며 이제는 책을 디지털화(e-book)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가능케 하였다.³¹⁾

30) 한겨레신문(2004. 10. 6)의 “전자책, 골라 읽는 재미 쏠쏠” 기사 인용.

기존의 도서관에서 디지털 공공도서관으로의 빠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요인을 일곱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서지DB 구축이 가능해 진 것이다. 즉, 더블린코어에서 멀티미디어 및 전자문서 처리에 관련된 15개 항목의 태그를 정의하면서 기계가독형목록(MARC)에서 사용되는 태그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전자책 문서 포맷 표준'EBKS 1.0'에서도 더블린코어를 수용하고 있어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서지DB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디지털도서관의 배경이 될 수 있다.

2)정보검색 환경의 변화로 e-book을 쉽게 접근하고 신속·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책도서관 환경에서 자료검색의 도서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e-book을 검색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이용자로 하여금 e-book의 대출·열람을 가능케 하고 사서들에게는 e-book에 포함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자동목록을 용이하게 생성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e-book은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대출·열람이 가능하므로 또 다른 인터넷 도서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공도서관의 인력 및 시간과 공간상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서비스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다.

4)e-book을 볼 수 있는 다양한 e-book 단말기의 발전이다. e-book을 볼 수 있는 단말기로 각 가정의 PC뿐만 아니라, 전용 단말기, PDA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기존의 디지털도서관에서는 PC 및 전용 단말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e-book 서비스가 가능하였다. 최근 들어 핸드폰 기술의 발달로 인해 PDA 및 핸드폰 단말기를 통한 공공도서관

31) 성대훈. “전자책(e-book)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7권 제3호. 2002. p. 125.

e-book 열람서비스도 활용되어 지고 있는 시점이다.

5)저작권보호기술의 발달이다. e-book에 대한 우려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DRM 및 Watermarking 기술 등 다양한 저작권보호기술의 적용으로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자료의 보관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불법복제로부터 저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6)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이용 방식의 변화와 확장이다. 과거의 e-book 서비스가 관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PC를 통해 열람과 검색 위주의 서비스였던 반면에,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 중심의 '내 서재'등과 같은 개인책장(서고)은 대출을 원하는 e-book을 내 서재로 간편하게 클릭하여 옮겨놓을 수도 있으며, 대출한 e-book의 경우 반납을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납되는 등 e-book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간단한 절차로 처리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설정된 대출기간동안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며 자동 반납처리가 이루어진다.

7)저장 공간의 변화이다. 무한한 출판양은 전통도서관으로 하여금 소장공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의 e-book의 소장공간은 컴퓨터의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소장을 위한 별도의 서고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으며, e-book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인해 보다 확실한 수서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으로의 발전은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효과적인 도서관 수서정책의 일환으로 e-book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e-book을 확장하게 된 배경 중 두 번째로는 바로 효과적인 예산지원 및 효율적 활용의 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부 예산증가와 대출 이용 빈도에 따른 구매의 용이성, 수서 비용의 효율화

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외부 지원예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2년대 말부터 e-book에 대한 도입이 시작되어, 2003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구입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며, e-book에 대한 예산배정이 훨씬 수월해지면서부터다.

더욱이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전자책 공동구매 사업”에서 많은 공공도서관이 이 사업에 참여한 8개의 e-book업체(동사모, 바로북닷컴, 북토피아, 아리수미디어, 위즈북, 조은커뮤니티, 지식공학, 한국문학도서관)를 대상으로 콘텐츠와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e-book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또한 대출 이용 빈도에 따른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도서관용으로 제작된 e-book을 구입할 때 Copy Licence로 구매하고 대출 이용 빈도에 의해 구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공공도서관은 1권의 책에 대한 이용자수를 e-book 도입 시 결정하게 되어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수에 따라 구입비용이 달라진다. 위즈북이나 조은커뮤니티 등과 같은 업체들은 이용자수를 도서관에서 ‘자유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은 3User, 5User, 10User, 무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구입한다. 도서관으로서는 e-book에 대한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구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2003년대는 e-book 도입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2002년 12월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e-book에 대한 서비스를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디지털화와 예산지원, e-book의 효율적 활용에도 그 배경이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요구

변화에도 그 배경이 있다 하겠다.

e-book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도 증가는 온라인 서점이나 e-book 제작 업체 등을 통해 도서관에서 보다 먼저 e-book을 접해본 이용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가정의 개인 PC, PDA 등을 통한 대출·반납(재택서비스)이 가능하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e-book에 대해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매체환경 변화를 이용자들이 수용함으로서 단순자료만을 이용하던 과거의 이용자와는 달리 좀더 다양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을 원하면서 디지털컨텐츠에 적합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요구하게 되면서이다. 종이책에 익숙해져있는 이용자들은 e-book에 대한 시각적인 불편함 등으로 인해 e-book을 꺼려하기도 한다. 이에 웹빙, 취미, 수험서분야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디지털컨텐츠 정보 요구가 증가하면서 e-book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3.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현황 분석

3. 1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도서관” 명칭으로 디지털컨텐츠가 도입되어 대표적인 네트워크 정보 자원으로 활용되어진 2002년 후반부터 시작했다. 2003년에는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e-book 공급 업체로는 주로 북토피아, 위즈북, 동사모, 바로북, 아리수미디어 등이다.

2003년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은 총 45개관이며, 2004년 5월 개관한 아리랑정보도서관을 포함하면 총 46개관이 된다. 그 중 운영주체가 구청인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강북문화정보센터 외 총 11개관으로 이들 중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청소년정보센터’, 그리고 ‘성북정보도서관’과 ‘아리랑정보도서관’은 그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강북청소년정보센터’는 ‘강북문화정보센터’의 e-book을 그리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성북정보도서관’의 e-book을 공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사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사대상 선정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성북정보도서관’을 대표로하였다. 또한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 업체를 통한 e-book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8개 공공도서관을 조사대상에 선정하였다. 편의상 이들 도서관을 강북, 관악, 광진, 금천, 도봉, 성동, 성북, 중랑으로 각각 표기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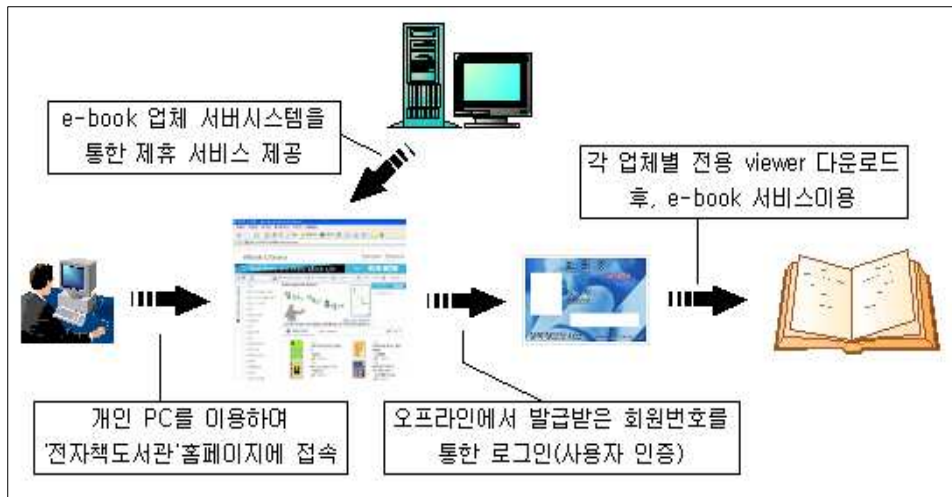
조사방법은 이들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수집, 통계자료 및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업체별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표 5> 업체별 e-book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업체명	서비스제공 공공도서관
북토피아	강북, 광진, 금천, 성동, 성북, 중랑
위즈북	관악
동사모	도봉, 성북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은 북토피아, 위즈북, 동사모 총 3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강북, 광진, 금천, 성동, 중랑은 북토피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관악은 위즈북을, 도봉은 동사모를, 그리고 성북은 북토피아와 동사모 2개 업체를 통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도서관들의 e-book 서비스 제공 체계를 요약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대부분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체계를 살펴보면 관내의 이용자 및 외부 이용자들은 PC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도서관’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의 ‘전자책도서관’홈페이지는 e-book 업체 서버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 이용자들은 전자책도서관에서 로그인 후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자관의 회원증을 오프라인상에서 발급받아 회원번호와 성명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림 2>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체계

현재 도서관 외부이용자에게 전자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SI(System Integrated)패키지방식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는 주로 ASP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ASP방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e-book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e-book 유통시스템을 링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인증을 받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도서관 외부에서도 e-book의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³²⁾ 이처럼 열람을 비롯한 대출, 반납, 연장 등의 e-boo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상에서 발급받은 도서관 회원증의 회원번호를 통해 로그인 함으로서 사용자 인증 받을 수 있다. e-book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e-book이 제작되어진 포맷 형태에 따라 또한 각 업체에 따른 전용 뷰어를 설치해야 가능하다. e-book 업체의

32) 곽동철, “디지털도서관의 전자도서 서비스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39권 제4호, 2002. p. 15.

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방식중 하나인 ASP방식을 나타낸 것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SP 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방식

<출처 : 북토피아의 웹 사이트 “<http://library.booktopia.com/ebooklibrary/method.asp>”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또한 앞서 살펴본 <표 5>에서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e-book 제공 업체인 북토피아, 위즈북, 동사모 제공의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아래의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따라서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e-book 제공 업체는 총 3업체로 나눌 수 있으며 북토피아, 동사모, 위즈북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가 자체 제작 e-book 구축이 아닌, e-book 제작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의 e-book을 구입하여 제공할 경우, 도서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별로 구입한 e-book 콘텐츠 분야 및 수량만이 다를 뿐, 동일한 업체일 경우 모든 도서관이 같은 전자책도서관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4> 북토피아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그림 5> 동사모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그림 6> 위즈북 제공 전자책도서관 메인화면

조사대상 공공도서관들의 e-book 서비스 제공방식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6>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정책 도서관명	e-book 업체	대출방식			분야	권수	도입 시기
		대출 권수	대출 기간 (일)	연장			
강북	북토피아	5	5	1회	전분야	2,565	2003년 1월
관악	위즈북	3	3	1회	전분야	1,000	2002년 12월
광진	북토피아	5	3	1회	전분야	1,665	2003년 1월
금천	북토피아	3	7	1회	전분야	2,696	2003년 9월
도봉	동사모	관외용으로 열람만 가능			어린이	1,000	2003년 1월
성동	북토피아	5	3	1회	전분야	1,543	2002년 12월
성북	북토피아	5	5	1회	전분야	1,928	2003년 4월
	동사모	관외용으로 열람만 가능					
중랑	북토피아	3	7	1회	전분야	1,141	2003년 12월

공공도서관별 e-book 서비스 제공에서 도서관별 대출방식은 동사모는 관외용으로 열람만이 가능하였으며, 북토피아와 위즈북은 3~5권을 3~7일간 대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봉도서관만이 어린이 e-book업체인 동사모를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고 있어 어린이분야만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관은 전 분야에 해당하는 e-book을 서비스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별 e-book에 대한 도입 시기는 2002년 12월 관악, 성동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중랑에서 e-book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8년 바로북이 최초로 인터넷상에서 e-book서비스를 실시하고, 2001년 6월 한국전자책컨소시엄에서 XML기반의 전자책 표준 포맷 EBK 1.0을 제정한 이래 불과 2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에서 e-book서비스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book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e-book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활용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소장권수에 비해 e-book의 구입권수는 매우 적으며, 구입 콘텐츠의 분야별 다양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도서관 e-book 구입비율 현황은 <표 7>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7> 공공도서관 e-book 구입비율 현황

도서관명	전체 소장권수	e-book	
		권수	비율(%)
강북	89,962	2,565	2.9
관악	61,962	986	1.6
광진	70,005	1,665	2.4
금천	65,225	2,696	4.1
도봉	50,528	1,000	2.0
성동	75,877	1,543	2.0
성북	44,768	1,880	4.2
중랑	95,972	1,141	1.2
평균	69,287	1,684	2.5

공공도서관별 전체 소장권수에 대한 e-book 구입권수 비율은 강북 2.9%, 관악 1.6%, 광진 2.4%, 금천 4.1%, 도봉 2.0%, 성동 2.0%, 성북 4.2%, 중랑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평균 69,287권의 소장권수 중 1,684권의 e-book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균 2.5%의 구입비율을 나타내어 전체 소장권수에 비해 e-book의 구입비율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e-book 콘텐츠 분야별 현황은 <표 8>에서 보는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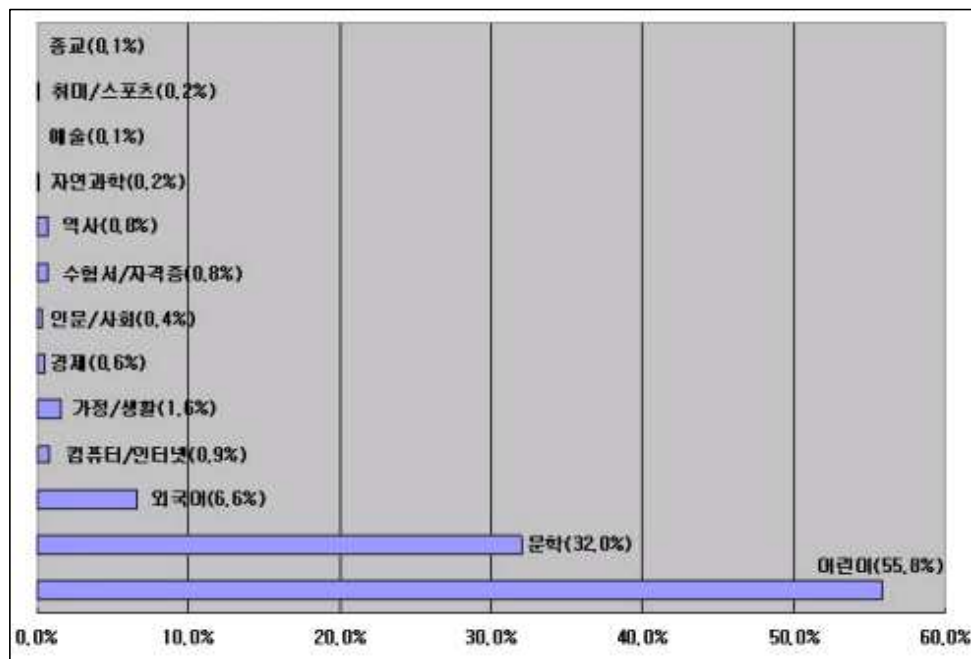
<표 8> 공공도서관 e-book 콘텐츠 분야별 현황

(기준: 권) : 괄호 안은 백분율임

도서관명 분야	강북	관악	광진	금천	도봉	성동	성북	중랑	합계
어린이	963 (37.5)	864 (87.6)	994 (59.5)	1,378 (51.1)	1,000 (100)	887 (57.5)	887 (47.2)	543 (47.6)	7,516 (55.8)
문학	1,239 (48.3)	10 (1.0)	639 (38.3)	1064 (39.5)	0	401 (26.0)	515 (27.4)	449 (39.4)	4317 (32.0)
외국어	185 (7.2)	110 (11.2)	3 (0.2)	97 (3.6)	0	179 (11.6)	301 (16.0)	20 (1.8)	895 (6.6)
컴퓨터/ 인터넷	0	0	23 (1.4)	27 (1.0)	0	26 (1.7)	19 (1.0)	22 (1.9)	117 (0.9)
가정/생활	32 (1.2)	0	1 (0.1)	49 (1.8)	0	8 (0.5)	102 (5.4)	24 (2.1)	216 (1.6)
경제	14 (0.5)	0	3 (0.2)	11 (0.4)	0	4 (0.3)	31 (1.6)	13 (1.1)	76 (0.6)
인문/사회	21 (0.8)	0	1 (0.1)	3 (0.1)	0	2 (0.1)	0	27 (2.4)	54 (0.4)
수험서/ 자격증	21 (0.8)	0	0	10 (0.4)	0	17 (1.1)	19 (1.0)	39 (3.4)	106 (0.8)
역사	41 (1.6)	0	3 (0.2)	39 (1.4)	0	19 (1.2)	0	3 (0.3)	105 (0.8)
자연과학	24 (0.9)	0	3 (0.2)	4 (0.1)	0	0	2 (0.1)	0	33 (0.2)
예술	7 (0.3)	1 (0.1)	0	2 (0.1)	0	0	0	1 (0.1)	11 (0.1)
취미/ 스포츠	6 (0.2)	0	0	11 (0.4)	0	0	4 (0.2)	0	21 (0.2)
종교	12 (0.5)	1 (0.1)	0	1 (0.0)	0	0	0	0	14 (0.1)
합계	2,565	986	1,665	2,696	1,000	1,543	1,880	1,141	13,481

‘강북’의 경우 e-book 분야별 구입 현황에서 문학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분야 비율이 37.5%로 높았다. 또한 ‘도봉’, ‘관악’, ‘광진’, ‘성동’, ‘금천’, ‘중랑’, ‘성북’의 경우는 모두 어린이 분야의 구입 비율이 각각 100%, 87.6%, 59.5%, 57.5%, 51.1%, 47.6%, 47.2%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분야별 현황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어린이 분야의 콘텐츠 구입비율이 평균 55.8%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학 분야가 32.0%로 높았다. 이는 어린이 분야와 문학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의 구입 비율이 전체적으로 12.2%에 불과한 것으로 e-book 콘텐츠 분야별 편중현상이 매우 심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7> 전체 e-book 콘텐츠 분야별 평균 비율

3. 2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설문 조사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설문 조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의 e-book 서비스 이용도와 의식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의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3. 2. 1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선정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몇몇 대표적인 e-book 업체들에 의해 서울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새로운 업체들이 e-book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대부분의 e-book 서비스는 분야별 종수와 서비스 방식 등에만 차이가 날 뿐 콘텐츠의 질과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권내의 공공도서관들 끼리의 협력을 통한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설문 대상 공공도서관은 서울시 강북지역 지자체 공공도서관 5개관(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e-book 서비스 현황조사 대상이었던 8개관 공공도서관

중 e-book 서비스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공 도서관들이다. 동일한 지역권에서 운영체계가 유사한 공공도서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e-book 서비스 활성화에 무엇보다 필요함을 감안하여 강북지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6개관을 선정하였다.

둘째, 강북지역 지자체 공공도서관 6개관 중 ‘도봉문화정보센터’의 경우 어린이 분야의 e-book 콘텐츠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은 총 5개관으로 <표 9>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9>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도서관명 \ 구 분	지역구	서비스 업체	분야	구입 권수	도입시기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구	북토피아	전분야	2,565권	2003년 1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북토피아	전분야	993권	2003년 12월
아리랑정보도서관		동사모	어린이	887권	2003년 4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	북토피아	전분야	1,141권	2003년 12월

3. 2. 2 설문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100부씩 총 500부

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이중 418부가 회수(회수율 83.6%)되었다.

설문 문항은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경험은 어떠한가,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e-book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 분야는 무엇인가,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0>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연번	일반사항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컨텐츠	홍보
1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		향후 이용 컨텐츠	이용방법 인식정도
2	연령	만족 정도		이용 콘텐츠 만족도	이용방법 인식경로
3	학력	만족 이유		컨텐츠 중점 부분	홍보 만족도
4	직업	불만족 이유		.	홍보 중점 부분
5	도서관 이용횟수	종이 책과 비교	편리한 정도	.	향후 이용 의향
6	컴퓨터 능숙도		불편한 정도	.	.
7	관심 정보 분야	.		.	.
8	인식 및 이용경험	.		.	.
9	이용경로	.		.	.
10	장점	.		.	.
11	이용매체	.		.	.
12	이용비용 유무	.		.	.
13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		.	.

설문 조사는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하여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설문에 답한 이용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여 e-book 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 등에 관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e-book 서비스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서비스만족 유무와 그 이유 그리고 종이책과 e-book에 대한 비교 사항 등에 관한 문항을 6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e-book 컨텐츠에 관한 질문 문항을 3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e-book 홍보에 관한 질문 문항을 5개로 구성하였다.

설문 분석은 본 연구가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응답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4.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

4. 1 설문 조사 분석 방법

설문조사 문항 총 27개의 설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였다. SAS 프로그램을 통해 I-1 문항에서 III-27 문항까지 총 27문항의 단일분석과 총 58문항의 교차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교차분석 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단일분석 문항 및 유의도가 있는 교차분석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수집된 자료 중 일정한 분포도를 이루고 있어 유의도가 증명된 교차분석 문항은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1> 유의도가 증명된 교차분석 문항

구분	문항	연구문제	유의도
e-book 이용경험	3번/8번	학력과 e-book 이용경험과 관계가 있는가?	0.0001
	5번/8번	도서관 이용빈도와 e-book 이용경험과 관계가 있는가?	0.0037
e-book 이용경로	5번/9번	도서관 이용빈도와 e-book 이용경로와는 관계가 있는가?	0.0113
만족이유	2번/16번	연령과 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와는 관계가 있는가?	0.0179
컨텐츠 중점 부분	3번/22번	학력과 e-book 컨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는 관계가 있는가?	0.0160
	4번/22번	직업과 e-book 컨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는 관계가 있는가?	0.0267

앞으로의 e-book 이용의향	25번/27번	도서관의 e-book 홍보 만족도와 앞으로의 e-book 이용 의향과의 관계는?	0.0001
	14번/27번	도서관 e-book 이용경험과 앞으로의 e-book 이용 의향과의 관계는?	0.0001
	18번/27번	e-book 이용편리성과 앞으로의 e-book 이용 의향과의 관계는?	0.0001

4. 2 설문 조사 항목별 분석 및 고찰

4. 2.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e-book 인지도

문항 I-1부터 I-13를 통해 조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성별	남	151	36.3
	여	265	63.7
합 계		416 (무응답:2명)	100
연령	19세 이하	79	18.90
	20대	198	47.37
	30대	105	25.12
	40대	26	6.22
	50대	7	1.57
	60세 이상	3	0.72
합 계		418	100

학력	초등학교	3	0.72
	중학교	35	8.37
	고등학교	85	20.33
	대학교	263	62.92
	대학원	32	7.66
합 계		418	100
직업	학생	212	50.72
	주부	53	12.68
	자영업	24	5.74
	회사원	62	14.83
	공무원	12	2.87
	교직원	10	2.49
	연구원	2	0.48
	기타	43	10.29
합 계		418	1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표 12>를 살펴보면 설문지별 남녀 비율은 남자의 비율이 36.3%이며 여자의 비율은 63.7%로 여자의 비율이 27.4%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응답 비율은 19세 이하의 비율이 18.9%, 20대 47.37%, 30대 25.12%, 40대 6.22%, 50대 1.57%, 60대 0.72%로 20~30대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2.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 응답비율에서 대학교 학력의

응답비율이 62.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 응답비율에서도 학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72%로 높게 나타나 20대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문항 I-5의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일주일에 2~3번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140명(33.4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달에 2~4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121명(28.95%)으로 높았다. 반면에 ‘한달에 한번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82명(19.62%), ‘일년에 1~2번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2명(2.87%)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횟수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설문지 배포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이용횟수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은 <표 13>과 같다.

<표 13> 도서관 이용횟수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하루에 한번 이상	63	15.07
일주일에 2~3번	140	33.49
한달에 2~4번	121	28.95
한달에 한번	82	19.62
일년에 1~2번	12	2.87
합 계	418	100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주제 관심분야는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학, 어학 등의 ‘인문과학 분야’가 49명(11.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과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관심분야에 대한 응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관심분야에 대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주제 관심분야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인문과학	49	11.72
사회과학	23	5.50
예술 및 취미	21	5.02
순수과학 및 과학기술	6	1.44
응용과학	7	1.67
합 계	418	100

응답자들의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에서는 e-book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11.01%를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한 도서관 이용자들 대부분이 e-book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book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6%에 불과해 e-book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5>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전혀 모름	46	11.00
들어본 적만 있음	116	27.75
알고 있지만, 이용경험 없음	112	26.79
알고 있고, 이용경험 있음	144	34.46
합계	418	100

응답자들의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문항 I-5와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문항 II-8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통계 처리한 결과 유의도 0.0037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설문에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2~3번, 한달에 2~3번, 한달에 한번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중에는 ‘e-book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38.10%, 36.43%, 35.54%, 30.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년에 1~2번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e-book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4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e-book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서관 e-book의 이용증진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는 다양한 e-book을 수집, 교육 및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book을 활용한 이벤트를 계획하여 e-book 시연회, e-book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이용자 정보요구에 대한 경향 분석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표 16>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6>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횟수	응답자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만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경험 없음	알고 있고, 이용경험 있음	합계
하루에 1번 이상	3 (4.76)	19 (30.16)	17 (26.98)	24 (38.10)	63 (15.07)
일주일 에 2~3번	14 (10.00)	34 (24.29)	41 (29.29)	51 (36.43)	140 (33.49)
한달에 2~3번	7 (5.79)	42 (34.71)	29 (23.97)	43 (35.54)	121 (28.95)
한달에 한번	17 (20.73)	17 (20.73)	23 (28.05)	25 (30.49)	82 (19.62)
일년에 1~2번	5 (41.67)	4 (33.33)	2 (16.67)	1 (8.33)	12 (2.87)
합 계	46 (11.01)	116 (27.75)	112 (26.79)	144 (34.45)	418 (100)

응답자들의 학력별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유의도 0.0001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학력 이상으로 갈수록 e-book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교 학력의 경우 e-book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7.28%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학력의 경우도 역시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8.75%로 월등히 그 응답수가 높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는 들어본 적만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40%, 43.53%로 가장 높아 e-book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학력의 경우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66.67%로 높아 초등학생들의 e-book 이용경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경험이 있으며, 컴퓨터 활용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서비스에 있어서도 어린이분야의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book을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교이상의 이용자들이 및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정보매체인 e-book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컨텐츠를 어떻게 구축하고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원생보다는 대학생의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e-book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e-book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이 적은 중·고등학교 학력의 이용자층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정보제공 기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부합되는 e-book 서비스의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표 17> 학력별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

인지도와 이용경험 학 력	응답자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만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경험 없음	알고 있고, 이용경험 있음	합계
초등학교	0	0	1 (33.33)	2 (66.67)	3 (0.72)
중학교	5 (14.29)	14 (40.00)	8 (22.86)	8 (22.86)	35 (8.37)
고등학교	10 (11.76)	37 (43.53)	24 (28.24)	14 (16.47)	85 (20.33)
대학교	28 (10.65)	62 (23.57)	75 (28.52)	98 (37.28)	263 (62.92)
대학원	3 (9.38)	3 (9.38)	4 (12.50)	22 (68.75)	32 (7.66)
합계	46 (11.01)	116 (27.75)	112 (26.79)	144 (34.45)	4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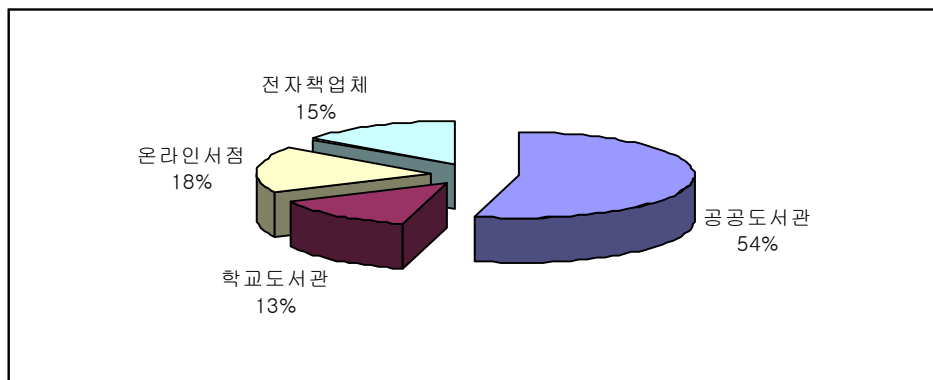
다음으로 e-book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144명 (34.45%)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문항 I -9부터 12까지 e-book 이용경로와 이용매체, 그리고 e-book의 장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응답자들의 e-book 이용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e-book을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54.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e-book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중 절반 이상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e-book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서점 홈페이지’에서 e-book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7.53%로 높았으며, ‘전자책업체 홈페이지’에서가

14.95%,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3.40%로 각각 나타났다.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e-book 이용경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8>과 <그림 8>과 같다.

<표 18> e-book 이용경로 (복수응답)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105	54.12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26	13.40
온라인서점 홈페이지	34	17.53
전자책업체 홈페이지	29	14.95
합 계	194	100.00



<그림 8> e-book 이용경로

또한 도서관 이용횟수와 e-book 이용경로와 관계가 있는지 설문분석결과 유의도 0.0113으로 상호관련이 높았으며,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이상 이용한다는 이용자수가 과반수가 넘고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한 이용도가 높다는 것은 e-book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앞장서야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에서 e-book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19>에서 보면 응답자들의 일부가 학교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응답률이 약 25%가 넘고 있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e-book의 콘텐츠 종류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e-book에 대한 해설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일부가 학교도서관이나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과 온라인서점을 통한 e-book 접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도서관’을 통한 e-book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다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19> 도서관 이용횟수와 e-book 이용경로 (복수응답)

이용경로 이용횟수	응답자수(%)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온라인 서점	전자책 업체	합계
하루에 1번 이상	20 (57.14)	2 (5.71)	6 (17.14)	7 (20.00)	35 (18.04)
일주일에 2~3번	41 (60.29)	14 (20.59)	10 (14.71)	3 (4.41)	68 (35.05)
한달에 2~4번	35 (61.40)	6 (10.53)	7 (12.28)	9 (15.79)	57 (29.38)
한달에 한번	9 (27.27)	3 (9.09)	11 (33.33)	10 (30.30)	33 (17.01)
일년에 1~2번	0	1 (100)	0	0	1 (0.52)
합 계	105 (54.12)	26 (13.40)	34 (17.53)	29 (14.95)	194 (100)

<표 20>은 e-book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e-book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답변이 3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e-book이 종이책보다 불편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e-book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분석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30.80%의 응답률을 나타낸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답변이 높았으며, 전자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도 16.67%로 나타나 e-book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알아본 <표 15>의 e-book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표 20> e-book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전자책에 대해 전혀 모름	46	16.67
필요성을 못 느낌	87	31.52
이용방법이 까다로움	22	7.97
전자책의 종류 및 종수가 부족	36	13.04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에 편리	85	30.80
합 계	276	100.00

이러한 설문 결과는 이용자들이 e-book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종이책이 아직까지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결과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e-book 서비스는 종이책과 비교하여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은

e-book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종이책이 사용하기 더 편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콘텐츠의 부족과 이용방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e-book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종이책보다 e-book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인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e-book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이책과 비교하여 e-book을 보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e-book 단말기의 친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9>는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회사의 신개념 단말기 'Sigma Book'을 한 남자가 거리를 걸으며 읽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9>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사의 'Sigma Book'

<그림 9>의 'Sigma Book'은 책의 본문의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종이책과 유사하게 페이지를 표시하고 닫히면서 꺾일 수 있다. 또한 소니사에서 종이책과 흡사한 느낌과 최대 150권 정도의 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e-book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다

발전된 e-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니를 비롯하여 출판사 Kodansha Ltd.와 Shinchosha사를 포함한 14개 다른 회사들이 합작한 회사를 설립하였다.³³⁾ 이처럼 일본에서는 e-book 단말기의 최대 단점인 종이책에서 느낄 수 없는 가독성을 최대한 보완한 e-book reader를 여러 단말기 회사들이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단말기 회사들이 합작하여 신개념 단말기에 대한 개발을 통해 일본의 e-book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종이책과 비교하여 e-book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e-book 단말기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단말기 회사들의 개별적인 단말기 개발이 아닌, 자본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합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book 활성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book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e-book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지 설문 문항 I-10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약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데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책을 읽고 대출/반납 할 수 있다는데 e-book 서비스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중 약 30%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장점으로 들어 플래쉬로 제작된 어린이 분야의 동화 e-book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약 3%에 불과해 아직까지 e-book의 정보검색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으며, ‘복사 및 다운로드 기능’과 ‘종이책보다 저렴하다’는 대답도 2% 남짓의 응답률을 보여 e-book의 복사 및 다운로드 기능이 아직은 기술

33) The Japan Times Online-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n20040203b3.htm>(2004. 2. 3)의 “Hand-held e-book readers to hit market soon” 기사 인용.

적인 부분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21>과 같으며, 시·공간을 넘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e-book의 장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응답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e-book 콘텐츠 비율에서도 플래쉬로 제작된 어린이 분야의 e-book이 많은 것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e-book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던 <표 17>의 결과에서처럼 이들 이용자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험서 및 외국어 등의 콘텐츠에도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가미된 e-book 개발 노력이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e-book 이용증진에 필요하다.

<표 21> e-book 서비스의 장점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91	51.70
멀티미디어 기능	54	30.68
다양한 정보검색	23	13.07
복사 및 다운로드	4	2.27
종이책보다 저렴	4	2.27
합 계	176	100.00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44명의 설문결과(복수응답)		

4. 2. 2 e-book 서비스 만족도

문항 Ⅱ-14부터 Ⅱ-19의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 중 단일분석 및 유의도가 있는 교차분석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약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전체적으로 16.04%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만족’이라는 응답도 17.92%로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고찰하고 개선함으로서 이용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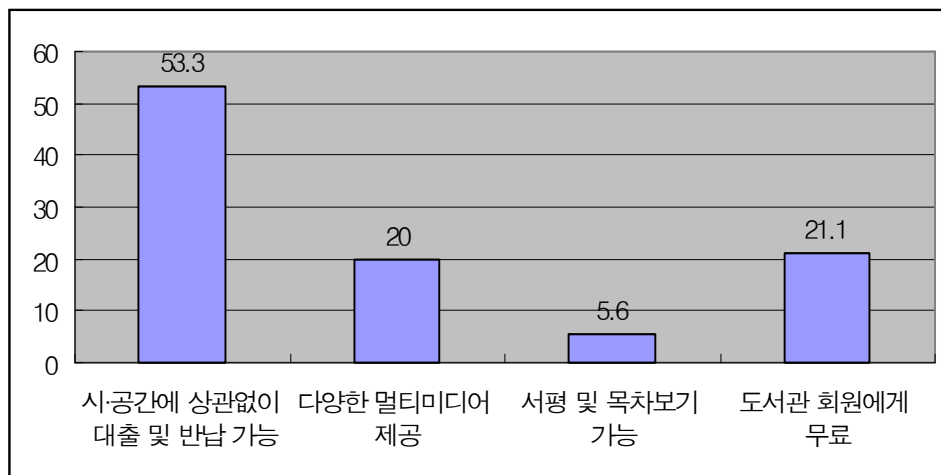
<표 22>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도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만족	0	0
만족	19	17.92
보통	70	66.04
불만족	16	15.09
매우 불만족	1	0.95
합 계	106	100
※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05명의 설문 결과(복수응답)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이유는 <그림 10>과 <표 23>에 나타난바와 같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들은 도서관 e-book 서비스의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시·공간에 상관없이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다는데 5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앞서 e-book 서비스의 장점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본 <표 21>에서 가장 많은 51.7%의 응답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대답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 및 e-book 콘텐츠 제공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서비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e-book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은 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만의 특징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도서관 회원에게 무료’라는 만족 요인에 약 20%가 넘는 많은 응답률을 보여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이 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어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회원등록이 가능한 도서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도서관 지역주민의 정보요구가 반영된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10>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

도서관 e-book 서비스의 만족 이유를 묻는 문항 II-16과 응답자들의 연령을 조사한 문항 I-2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도가 0.0179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공간에 상관없이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다’는 e-book 서비스의 만족 이유에 10대 응답자들을 제외한 20~40대까지의 응답자들에게서 대부분 약 55%가 넘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10대 응답자들은 약 35%가 넘는 응답률을 보인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을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로 뽑아 20~40대 연령층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되어지고 있는 어린이분야의 e-book 콘텐츠 대부분이 멀티미디어 기능이 두드러진 플래쉬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층이 지역주민이며, 그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처럼 학생 및 교수와 같은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e-book 서비스는 이용증진

을 도모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조사 연구들은 공공도서관의 둘러싼 지역적 환경요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지역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 등처럼 특정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 및 주민 대다수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끊임없는 지역조사 연구는 도서관을 둘러싼 무한한 정보 속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다 근접한 선별정보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e-book 서비스의 이용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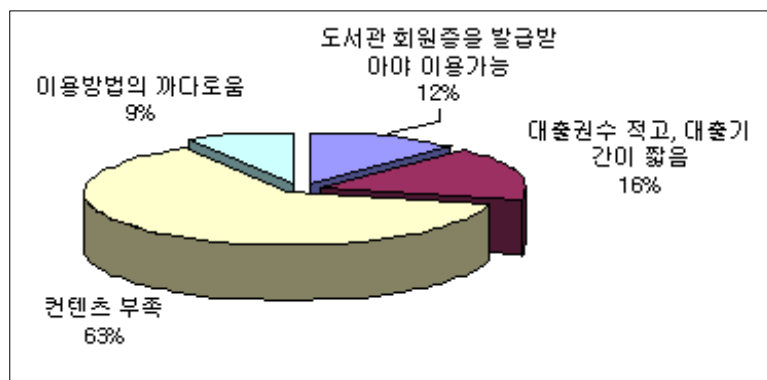
연령별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 연령별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만족 이유

만족 이유 연 령	응답자수(%)				
	시·공간에 상관없이 대출 및 반납 가능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	서평 및 목차보기 가능	도서관 회원에게 무료	합계
10대	3 (17.65)	6 (35.29)	3 (17.65)	5 (29.41)	17 (18.68)
20대	30 (63.83)	5 (10.64)	1 (2.13)	11 (23.40)	47 (51.65)
30대	13 (56.52)	6 (26.09)	1 (4.35)	3 (13.04)	23 (25.27)
40대	2 (66.67)	1 (33.33)	0	0	3 (3.30)
합계	49 (53.85)	18 (19.78)	5 (5.49)	19 (20.88)	91 (100)
※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05명의 설문결과로 무응답 14명					
※ 50대의 응답자수 0건, 60대 응답자수 1건으로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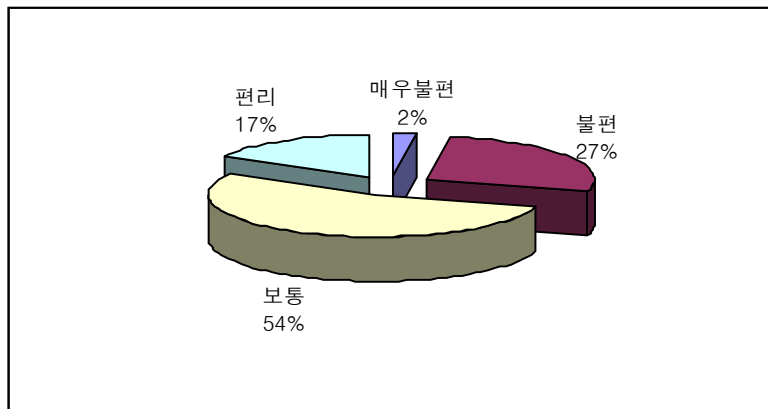
앞서서 e-book 서비스에 대한 만족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불만족 이유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들이 응답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도서관 e-book의 ‘컨텐츠 부족’으로 약 6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불만족 이유로 도서관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컨텐츠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든 것으로 보아 e-book 활성화에 있어 컨텐츠 부족은 큰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불만족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e-book 서비스 불만족 이유

다음으로 e-book 이용이 종이책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 II-18의 설문 결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54%로 가장 높았으나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0%인 반면에 ‘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29%로 ‘편리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 12>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림 12> 종이책과 비교한 e-book 이용의 편리도

종이책에 비해 e-book이 불편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컨텐츠 부족’과 ‘책 읽기의 불편함’을 e-book이 종이책보다 불편한 이유로 대답했으며, 그 응답률은 약 30%가 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그림 11>의 e-book 서비스 불만족 이유에서 컨텐츠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도 동일한 결과로 e-book의 컨텐츠 부족에 대한 해결이 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위한 과제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 읽기의 불편함은 종이책 읽기에 익숙해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PC상에서만 e-book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휴대성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PDF가 대중적

으로 보급되지 않은 이유도 포함될 수 있다.³⁴⁾ PC나 PDF, 그리고 신 개념의 단말기 개발을 통해 책 읽기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e-book 이용증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앞서 e-book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본 <표 20>에서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약 30%로 나타난 것과도 연관된다. 아래의 <표 24>는 e-book 이용이 종이책보다 불편한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4> e-book 이용이 종이책보다 불편한 이유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전자책 소프트웨어 사용법이 복잡	22	8.30
컨텐츠 부족	83	31.32
책 읽기의 불편	83	31.32
휴대용으로 불편	76	28.68
기타	1	0.38
합계	265	100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44명의 설문결과(복수응답)		

34) 김진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 92.

4. 2. 3 e-book 콘텐츠 만족도

문항 Ⅲ-20부터 Ⅲ-22를 통해 조사한 응답자들의 e-book 콘텐츠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표 25>에서 보는바와 같다.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22>의 e-book 서비스 만족도에서와 같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약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약 26%인데 반하여 ‘만족 한다’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약 9%로 낮게 조사되었다. 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에서의 e-book 콘텐츠에 대해서도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e-book 콘텐츠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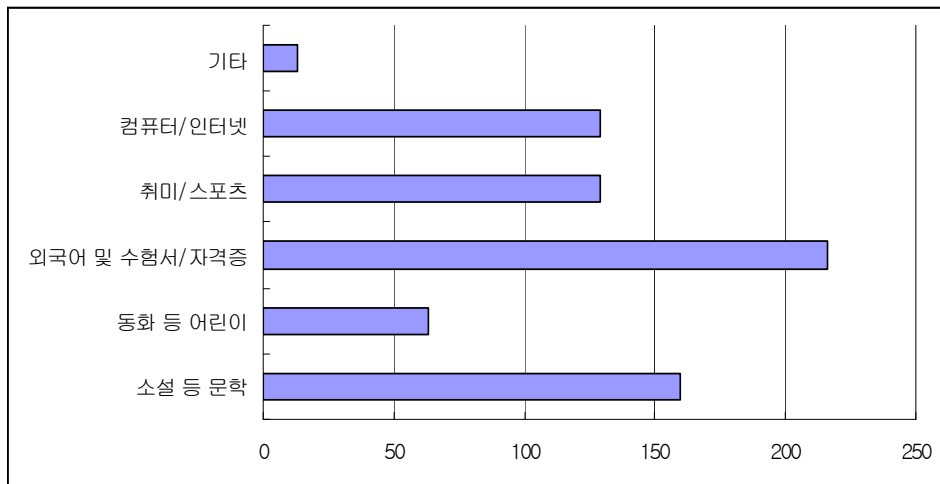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만족	1	0.70
만족	12	8.45
보통	92	64.79
불만족	35	24.65
매우 불만족	2	1.41
합 계	142	100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44명의 설문결과(무응답 2명)		

응답자들은 어떠한 e-book 콘텐츠를 원하는지 문항 Ⅲ-20을 통해 조사한 설문 결과는 <표 26>과 <그림 13>에서와 같다.

설문 응답률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외국어 및 수험서/자격증’ 콘텐츠에 대한 요구로 약 30%가 넘는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e-book 콘텐츠가 ‘소설 등 문학’ 분야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실질적으로 ‘소설 등 문학’분야를 요구하는 응답률은 약 20% 정도로 ‘취미/스포츠’분야와 ‘컴퓨터/인터넷’분야에 대한 응답률 약 19% 정도와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동화 등 어린이’분야의 선호도가 약 8%로 낮게 조사된 것은 현재 서비스되어지고 있는 e-book 콘텐츠에서 ‘동화 등 어린이’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전공서적류, 잡지, 백과사전 등의 참고자료, 고서 등의 콘텐츠 요구가 조사되었다.

<표 26> e-book 콘텐츠에 대한 요구 (복수응답)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소설 등 문학	160	22.54
동화 등 어린이	63	8.87
외국어 및 수험서/자격증	216	30.42
취미/스포츠	129	18.17
컴퓨터/인터넷	129	18.17
기타	13	1.83
합 계	710	100



<그림 13> e-book 콘텐츠에 대한 요구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e-book 관련 개발업체들의 서비스 분야별 종수를 살펴보면 일반 단행본이 55종, 아동도서 50종, 학습참고서 40종, 만화 15종으로 나타났다.³⁵⁾ 이러한 결과는 e-book 출판업체 등의 개발업체들의 주력서비스는 문학 등의 일반단행본과 아동도서, 학습참고서, 만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판매종수도 이와 같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e-book 콘텐츠 분야가 문학과 아동서 등에 편중됨으로 인해 ‘콘텐츠 부족’을 e-book 서비스의 큰 불만족 이유로 나타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공도서관에서 e-book의 콘텐츠 분야를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주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야가 다양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발 업체들의 자체적인 협력망을 구축하여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제 응답자들은 공공도서관 e-book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어떠한 대답을 하였는지 문항 III-22의 설문결과를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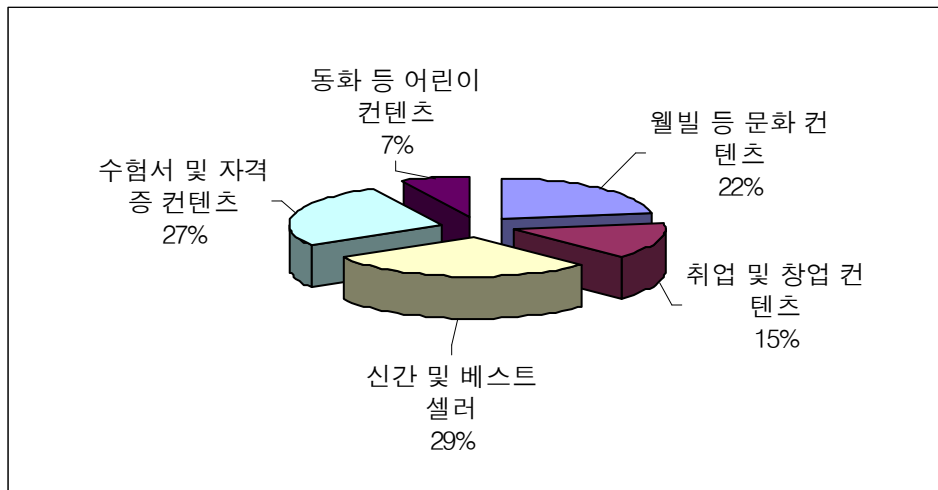
35) 문화관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2000. p. 213.

석한 결과는 <표 27>과 <그림 14>에서와 같다.

e-book 콘텐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전체 응답자 418명 중 약 29%로 달하는 121명이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book 콘텐츠의 신간과 베스트셀러의 신속한 업로드를 e-book 콘텐츠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험서 및 자격증 콘텐츠’가 약 27%로 높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표 26>의 e-book 콘텐츠 요구에서 ‘외국어 및 수험서/자격증’분야의 콘텐츠를 가장 선호한 것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e-book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e-book 개발업체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e-book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신간 및 베스트셀러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27>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웰빙 등 문화 콘텐츠	94	22.49
취업 및 창업 콘텐츠	62	14.83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확충	121	28.95
수험서 및 자격증 콘텐츠	111	26.56
동화 등 어린이 콘텐츠	30	7.18
합 계	418	100



<그림 14>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를 묻는 설문 문항과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도 0.0267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들의 직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확충’이라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업별로 도서관 e-book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대답한 응답률은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경우 ‘수험서 및 자격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약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영업과 회사원의 경우는 ‘웹빌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에게 웹빌관련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와 같은 건강과 여가 그리고 취미 등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주부의 경우 ‘동화 등 어린이’분야의 콘텐츠 확충에 많은 가장 많은 약 33%의 응답률을 보여 자녀교육을 위한 e-book 콘텐츠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직업별로 도서관 e-book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28>과 같다.

직업별로 e-book 콘텐츠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직업별로 약 25%가 넘는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은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확충’이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위한 콘텐츠에 대한 중점 사항에서 직업별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층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직업별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e-book 콘텐츠 중점 사항의 설문 결과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구축에 대한 도서관의 예로사항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다양한 이용자층의 요구를 반영해야만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이러한 예로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따른 도서관 주요 이용자층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e-book 서비스의 이용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e-book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e-book 서비스의 이용증진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용자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최신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e-book을 서비스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표 28> 직업별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콘텐츠

콘텐츠 중점부분 직업	응답자수(%)					
	웰빙 등 문화 콘텐츠	취업 및 창업 콘텐츠	신간 및 베스트셀러 의 확충	수험서 및 자격증	동화 등 어린이	합계
학 생	29 (13.68)	43 (20.28)	67 (31.60)	68 (32.08)	5 (2.36)	212 (50.72)
주 부	12 (22.64)	6 (11.32)	14 (26.42)	3 (5.66)	18 (33.96)	53 (12.68)
자영업	13 (54.17)	0	6 (25.00)	4 (16.67)	1 (4.17)	24 (5.74)
회사원	21 (33.87)	4 (6.45)	16 (25.81)	18 (29.03)	3 (4.84)	62 (14.83)
공무원	3 (25.00)	0	4 (33.33)	4 (33.33)	1 (8.33)	12 (2.87)
교직원	1 (10.00))	1 (10.00))	5 (50.00)	1 (10.00)	2 (20.00)	10 (2.39)
연구원	0	1 (50.00))	1 (50.00)	0	0	2 (0.48)
기 타	15 (34.88)	7 (16.28)	8 (18.60)	13 (30.23)	0	43 (10.29)
합계	94 (22.49)	62 (14.83)	121 (28.95)	111 (26.56)	30 (7.18)	418 (100.00)

4. 2. 4 e-book 홍보 만족도 및 이용의향

문항 IV-23부터 IV-26을 통해 조사한 응답자들의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홍보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공도서관 e-book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수가 약 3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약 23%인 것에 반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약 40%에 달해 설문 응답자들은 e-book 이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e-book의 이용경험에 대해 조사했던 <표 15>에서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수 144명(34.45%)보다 높은 수치이며, e-book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e-book에 대한 이용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e-book 이용방법에 대한 도서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공도서관 e-book 이용방법 인지정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공공도서관 e-book 이용방법 인지정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전혀 모름	39	9.35
모름	130	31.18
보통	155	37.17
대체로 알고 있음	84	20.14
확실히 알고 있음	9	2.16
합 계	417 (무응답:1명)	100

이용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e-book 이용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수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사람’을 통해서와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해서라는 응답률은 각각 약 20%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서 및 도서관직원’이라는 응답은 약 7%정도에 그쳤으며, 응답자수도 약 1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기타 응답으로는 신문 및 TV 등 언론매체, EBS, 온라인 서점, 인터넷 등이 있었다.

e-book 서비스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e-book 이용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수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 친구나 이웃 등을 통해 e-book 이용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홍보매체인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한 인지정도가 20.08%로 높지 않게 조사되어 도서관 소식지 등을 통한 e-book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서 및 도서관직원’을 통한 인지정도도 7.3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도서관내에서의 사서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book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는 e-book 이용방법 인지 경로로 가장 높게 나타난 ‘도서관 홈페이지’만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라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타 사이트(관련기관 - 구청홈페이지, 문화원 홈페이지, 마을문고 홈페이지 등)에서도 도서관 e-book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클릭으로 도서관 e-book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e-book 이용방법에 대하여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book에 대한 이용방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의 인지 경로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 e-book 이용방법 인지경로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도서관 홈페이지	105	40.54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	52	20.08
사서 및 도서관직원	19	7.34
주변사람	56	21.62
기타	27	10.42
합계	259	100
※e-book 이용방법 인지정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248명의 설문결과(복수응답)		

홍보 부족과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e-book 홍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e-book에 대한 홍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한다’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약 10%를 밑도는 정도로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수는 전체적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e-book 홍보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의 불만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e-book 홍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e-book 홍보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불만족	10	2.39
불만족	116	27.75
보통	252	60.29
만족	37	8.85
매우 만족	3	0.72
합계	418	100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e-book 홍보방법 문항에 응답자들은 어떻게 답하였는지 e-book 홍보방법 요구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와 <그림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 중 e-book 홍보방법으로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 및 도서관직원’이라는 응답과 ‘이용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홍보를 요구한 응답률이 각각 약 20%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기타 응답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일간지를 통한 홍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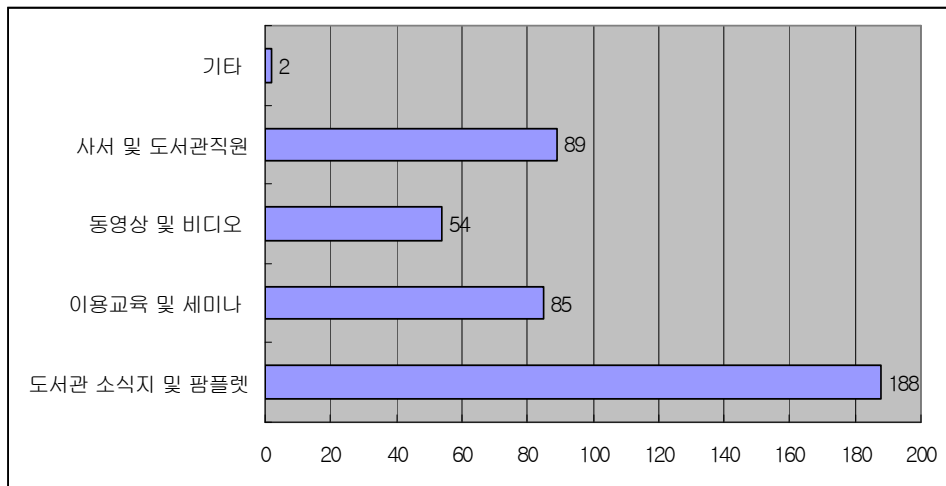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표 30>의 e-book 이용방법 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이라고 답한 응답자수가 52명 (20.08%)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응답자들은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한 e-book의 홍보가 잘 안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e-book 이용방법 인지경로로 ‘사서 및 도서관직원’이라고 답한

응답자수가 전체 418명 중 단 19명(7.34%)만이 답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book 홍보방법 요구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사서 및 도서관직원’을 통한 홍보방법 요구 응답자수는 무려 89명(21.29%)으로 188명(44.98%)이 응답한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한 홍보 요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은 도서관 e-book 홍보방법에 대해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와 ‘사서 및 도서관직원’을 통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 모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e-book 홍보방법에 대한 요구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	188	44.98
이용교육 및 세미나	85	20.33
동영상 및 비디오	54	12.92
사서 및 도서관직원	89	21.29
기타	2	0.48
합계	418	100



<그림 15> e-book 홍보방법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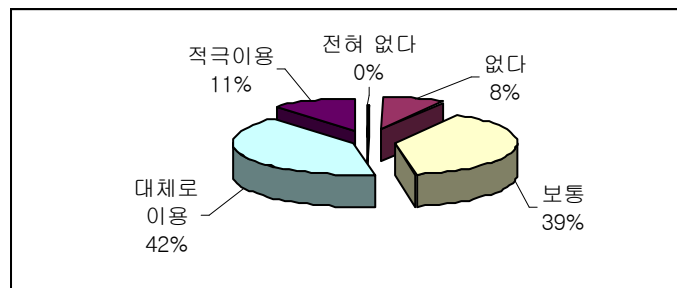
문항 IV-27의 앞으로의 e-book 이용의향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약 40%가 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적극이용’하겠다고 대답한 응답률도 약 11%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용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률은 약 8% 정도에 그쳐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도서관 e-book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book이 종이책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다양한 콘텐츠가 구축되어 서비스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나, e-book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심리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33>과 <그림 16>과 같다.

<표 33> e-book 이용의향

구 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전혀 없다	1	0.24
없다	35	8.37
보통	161	38.52
있다	173	41.39
매우 있다	48	11.48
합계	418	100



<그림 16> e-book 이용의향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이용경험과 앞으로의 e-book 이용의향에 대한 설문 문항 II-14와 문항 IV-27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도 0.0001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e-book에 대한 이용의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약 43%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한다'가 약 37%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e-book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한다'가 약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관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앞으로의 e-book 이용의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공공도서관 e-book 활성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며, e-book 서비스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e-book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도서관과 e-book 개발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e-book 서비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이용경험에 따른 앞으로의 e-book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과 e-book 이용의향

이용의향 이용경험	응답자수(%)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용	적극 이용	합계
없다	1 (0.32)	32 (10.26)	133 (42.63)	116 (37.18)	30 (9.62)	312 (74.82)
있다	0	3 (2.86)	28 (26.67)	56 (53.33)	18 (17.14)	105 (25.18)
합계	1 (0.24)	35 (8.39)	161 (38.61)	172 (41.25)	48 (11.51)	417 (100)
※무응답 : 1명						

5. 결론

도서관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매체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이용의 수월성과 새로운 정보 매체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e-book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e-book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위하여 e-book 서비스 현황 분석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5개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100부씩 총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418부가 회수(회수율 83.6%)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book에 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에서 응답자의 약 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율은 약 34%에 불과해 높은 인지율에 비해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e-book 인지도와 이용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응답자에서도 약 67%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e-book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횟수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공공도서관을 통한 e-book 이용도가 높다는 것은 e-book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앞장서야함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에서 e-book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둘째, e-book 서비스 만족도에서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약 15%, 1%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약 18%로 조사되어 도서관 e-book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의 만족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응답 다음으로 도서관 회원에게 무료라는 만족 요인에 약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 이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e-book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 약 32%,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응답률이 약 31%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종이책과 비교하여 e-book이 이용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e-book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종이책이 사용하기 더 편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이책과 비교하여 e-book을 보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e-book 단말기의 친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e-book 서비스의 장점으로 약 52%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약 31%가 멀티미디어 기능에 응답하였다. 이는 시·공간을 넘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정보수월성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e-book의 장점으로 답한 것이다. 따라서 e-book의 주된 이용자층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시켜 e-book 이용증진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e-book 서비스의 불만족 요인에는 63%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콘텐츠 부족이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e-book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률은 약 26%인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약 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설문결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콘텐츠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든 것으로 보아 e-book 활성화에 있어 콘텐츠 부족은 큰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여섯째, e-book 콘텐츠에 대한 요구는 외국어 및 수험서/자격증 콘텐츠가 약 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동화 등 어린이 분야의 선호도가 약 9%로 낮게 조사되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e-book 콘텐츠 비율에서 어린이 분야의 콘텐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e-book 관련 개발업체들의 주력서비스 분야 및 보유 종수에서 문학 등의 일반단행본과 아동도서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e-book 콘텐츠 분야가 이용자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문학과 아동서 등에 편중됨으로 인해 e-book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키우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곱째, e-book 홍보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약 10%를 차지한 반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률은 약 30%로 높게 나타나 도서관의 e-book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book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한 설문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41%로 가장 높았으나 사서 및 도서관직원을 통한 인지정도는 약 7%에 그쳤다. 도서관 홍보매체인 도서관 소식지 및 팸플렛을 통한 인지정도가 높지 않게 조사되었으며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지정도도 매우 낮게 조사되어 직접적인 홍보가 매우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홍보 방안의 마련과 도서관 소식지 및 팸플렛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사서와 이용자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여덟째, 앞으로의 e-book 이용 의향에서는 가장 많은 약 41%가 대

체로 이용하겠다고 답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앞으로 도서관 e-book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과 앞으로의 e-book 이용의향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공공도서관 e-book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e-book에 대한 이용의향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공공도서관 e-book 활성화 노력에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ook 기술에 있어 통일된 기술 포맷 및 뷰어의 개발 노력과 단말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작 기술에 대한 표준 작업은 e-book의 가장 큰 단점인 기술 포맷에 따른 뷰어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각각의 기술 포맷의 장점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표준 문서 포맷을 위한 표준 언어로 제안되고 있는 XML로 표준화된 e-book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e-book을 보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하기 위해 단말기의 친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의 국비지원 e-book 예산을 활용한 제작업체와의 콘텐츠 공동개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e-book 예산을 단지 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편중된 콘텐츠 구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역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e-book 예산을 활용한 콘텐츠 업체들의 공동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발 업체들의 자체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책도서관,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 사서로 대표되는 세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e-book 서비스 이용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전자책도서관 홍보에 있어서는 지역중앙

공공도서관과 연결되는 각 동의 마을문고, 구청 및 문화원 등의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e-book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클릭으로 도서관 e-book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도서관 소식지 및 팜플렛을 통한 지속적인 e-book 서비스 홍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서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조사 기간상의 이유로 서울시 강북지역 공공도서관에 제한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더 나아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 현황과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e-book 서비스 이용증진 방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입단계에서 활성화되기까지 공공도서관의 e-book 서비스는 과도기상태에 접어들었다. 공공도서관 e-book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각 지역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곽동철. “디지털도서관의 전자도서 서비스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
보」 제39권 제4호. 2000. pp. 3-17.
- 곽동철.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에 있어서 인식 전환에 관한 연
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 2003. pp. 113-130.
- 곽동철. “전자책, 전자책도서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미래.” 「도서
관문화」 제46권 제4호. 2005. pp. 34-36.
- 김범수. “도서관에서의 상업적 전자책 수서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
도서관」 제30호. 2003. pp. 30-41.
- 김병훈. “전자책(e-book)의 유통시스템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
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김소예. “e-book을 이용한 PDA용 통합 뷰어의 제작에 관한 연구.”
서울 :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 김승관. “전자책과 전자책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제46
권 제4호. 2005. pp. 18-21.
- 김원식. “RFID기반의 e-Book Service에 대한 연구.” 서울 : 단국대학
교-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은정, 김솔미. “전자책 시장의 현황과 전망.” 「정보관리연구」 제32
권 제1호. 2001. pp. 71-86.
- 김재윤. “한국 전자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블리아」 제5집. 2001.
pp. 45-56.
- 김진두. “전자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출판학연구」 제42호. 2000.
pp. 311-338.

- 김진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 문화관광부. 「한국 전자책(eBook)산업 발전방안 연구 : 전자책 표준화 및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2000.
- 문화관광부. 「세계 출판산업 지표조사 연구」. 2001.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3」. 2003.
- 박성연. “어린이들과 함께 커가는 학교도서관과 전자책.” 「도서관문화」 제46권 제4호. 2005. pp. 28-30.
- 박연희. “해외 전자책(e-book) 컨소시엄 도입 및 공동활용 현황 분석.” 「도서관」 제59권 제1호. 2004.
-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제1호. 2001. pp. 28-50.
- 산업자원부. 「전자책(e-Book) 시장 동향」. 2004.
- 성기신. “XML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e-Book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인천 : 인천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 성대훈. 「디지털 혁명, 전자책」. 서울 : 이채, 2004.
- 성대훈. “전자책(e-book)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7권 제3호. 2002. pp. 125-148.
- 성대훈. “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 성대훈. “국내 전자책(e-Book) 업계의 현황과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 「출판연구」 제13호. 2001. pp. 191-125.
- 안중호, 박철우. “e-Book 단말기 사용자 인식 변화에 관한 실증 조사.” 「경영정보논총」 제12권 제2호. 2002. pp. 73-93.
- 오익재. 「돈되는 e-콘텐츠」. 서울 : 형설출판사, 2002.
- 유선실. “e-Book.” 「정보통신산업동향」 2001-1호. 2001. pp. 106-125.

- 이민석. “전자책 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3호.
2003. pp. 29-39.
- 이승란, 서주하. “OEB(Open Electronic Book) 표준을 지원하는
Viewer의 설계와 구현.” 「산업기술연구」 제21권 A호. 2001.
pp. 199-205.
- 이용준. “외국 전자출판의 현황과 발전 방향.” 「출판학연구」 제42호.
2000. pp. 339-377.
- 이인철. “E-Book 솔루션 종류와 비교 그리고 미래.” 「디지털도서관」
제32호. 2003. pp. 85-98.
- 임순범. “전자책 문서 표준화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3호. 2003. pp. 14-21.
- 장선화. “전자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전현수. “디지털과 도서관의 만남-전자책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제46권 제4호. 2005. pp. 25-27.
- 정진영. “국내 아동도서 출판의 디지털화 경향에 관한 연구 : 아동용
CD-ROM과 멀티동화 전자책을 중심으로.” 서울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제수연. “전자책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
교-석사학위논문, 2000.
- 조기원, 최성. “e-book.” 「정보처리학회지」 제7권 제5호. 2000. pp.
96-102.
- 차은숙. “미래를 만드는 전자책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6권 제4호.
2005. pp. 22-24.
- 최종호. “우리나라 e-book(전자책) 전망에 대한 연구 : 국내 10개
e-book 업체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학
교-석사학위논문, 2001.

한겨레신문(2004. 10. 6). “전자책, 골라 읽는 재미 쏠쏠.”

한국 e-book 산업협의회. 「한국 e-book 백서」. 서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한국전자책컨소시엄. 「출판계의 새시장 전자책 출판」. 팜플렛. 2001.

한기호. 「디지털과 종이책의 행복한 만남」. 서울 : 창해, 2000.

황금숙. “학교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 이용현황 및 활용 방안.” 「한국비블리아」 제5집. 2001. pp. 73-88.

황병연, 심진규. “한국전자책 문서표준(EBKS) 기반 e-Book의 설계 및 구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제10권 제1호. 2003. pp. 775-778.

<국외문헌>

Armstrong, Chris. et. al. "Virtually There? E-Books in UK Academic Libraries." Program: Electron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s. Vol.36 No.4. 2002. pp.216-227.

Armstrong, Chris and Lonsdale, Ray. "Challenges in managing e-books collections in UK academic libraries."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9 No.1. 2005. pp. 33-50.

Browm, Gary J. "Beyond Print: Reading Digitally." Library Hi Tech. Vol.19 No.4. 2001. pp. 390-399.

Burk, Roberta. "Don't be afriaid of E-books." Library Journal. Vol.125 No.7. 2002. pp. 42-45.

- Dearnley, James and Mcknight, Cliff. "The Revolution Starts Next Week: The Findings of Two Studies Concerning Electronic Books."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Vol.21 No.28. 2001. pp. 65-78.
- Diaz, Paloma. "Usability of Hypermedia Educational E-Books." D-Lib Magazine. Vol.9 No.3. 2003.
<<http://www.dlib.org/dlib/march03/diaz/03diaz.html>>
- Gelfand, Julia. "User Input: Experiences in Assigned Reading from E-Books: One netLibrary Experience." Library Hi Tech News. Vol.19 No.1. 2002. pp. 17-18.
- Gibbons, Susan. et. al. *E-Book Functionality What Libraries and Their Patrons Want and Expect from Electronic Book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 Henke, Harold. *Electronic Books and ePublishing: A Practical Guide for Authors*. London : Springer-Verlag. 2001.
- Landoni, M. et. al. "From the Visual Book to the WEB Book: The Importance of Design." The Electronic Library. Vol.18 No.6. 2000. pp.407-419.
- Langston, Marc.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book Pilot Project: implications for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7 No.1. 2003. pp. 19-32.

<웹사이트>

<http://www.kepa.or.kr>

<http://www.openebook.org>

<http://en.wikipedia.org/wiki/E-book>

<http://www.brobook.com>

<http://www.booktopia.com>

<http://www.d-library.co.kr>

<http://www.dongsamo.co.kr>

<http://www.ebk.or.kr>

<http://www.sblib.seoul.kr>

<http://www.gwangjinlib.seoul.kr>

<http://www.chungnaglib.seoul.kr>

<http://www.gangbuklib.seoul.kr>

<http://www.sdlb.or.kr>

<http://www.openebook.org>

<http://library.booktopia.com/ebooklibrary/method.asp>

The Japan Times Online. "EBook market hit 1 billion yen in '02."

2003. 8. 2.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n20030802b3.htm>>

The Japan Times Online. "Hand-held e-book readers to hit market soon." 2004. 2. 3.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n20040203b3.htm>>

<부록>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전자책) 서비스

이용 증진 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로서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신은주라고 하며,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전자책) 서비스 이용 증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조사 중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이 연구가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e-book(전자책)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술적 학위논문 분석·통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학 전공

지도교수 : 이 우 범

조 사 자 : 신 은 주

E-mail(이메일) : jbrlove@gongdan.go.kr

전 화 : 016-780-7221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한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 II. 전자책(e-book) 서비스에 관한 질문
- III. 전자책(e-book) 콘텐츠에 관한 질문
- IV. 전자책(e-book) 홍보에 관한 질문

I. 먼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_ 남 _____ 여
2. 귀하의 연령은?
_____ 19세 이하 _____ 20~29세 _____ 30~39세
_____ 40~49세 _____ 50~59세 _____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대학교 _____ 대학원
4. 귀하의 직업은?
_____ 학생 _____ 주부 _____ 자영업 _____ 회사원
_____ 공무원 _____ 교직원 _____ 연구원 _____ 기타()
5.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_____ 하루에 한번 이상
_____ 일주일에 2~3번 정도
_____ 한달에 2~4번 정도
_____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 일년에 1~2번 정도
6. 귀하는 컴퓨터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못함 | 조금능숙 | 보통 | 능숙 | 매우능숙 |
|------|------|----|----|------|
| 1 | 2 | 3 | 4 | 5 |
| | | | | |

7. 귀하는 어떤 분야의 정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인문과학(문학, 어학, 철학 등)
- ☐ 사회과학(경제, 정치, 사회 등)
- ☐ 예술 및 취미
- ☐ 순수과학 및 과학기술
- ☐ 응용과학(의학, 공학 등)

▶ 전자책(e-book)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읽어 보신 후,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e-book)은 기존의 종이책 대신 인터넷의 표준 언어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를 말합니다. 전자책(e-book)은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PC,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읽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e-book(전자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귀하는 전자책(e-book)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 전자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
- ☐ 전자책에 대해 들어본 적만 있다.
- ☐ 전자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경험은 없다.
- ☐ 전자책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다.

▶ 전자책(e-book)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용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질문 9-12>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는 전자책(e-book)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용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 ☐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 ☐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 ☐ 전자책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 ☐ 기타 ()

10. 귀하는 전자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 ☐ 글씨(텍스트)만이 아닌,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다.
- ☐ 본문 내 검색 등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 ☐ 복사 및 다운로드 기능이 있다.
- ☐ 종이책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11. 귀하는 주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십니까?

- ☐ 도서관내에서 이용
☐ 개인 PC를 통해서 이용
☐ 전자책 전용단말기 또는 리더기(Reader)를 통해서 이용
☐ 핸드폰, PDA 등을 통해서 이용
☐ 기타 ()

12. 귀하는 전자책을 어떠한 비용으로 이용하십니까?

- ☐ 무료이용 ☐ 유료이용 ☐ 무료, 유료 둘다 이용 ☐ 잘모르겠다

13. 귀하가 전자책(e-book)에 대한 이용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 전자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
☐ 필요성을 못 느낀다.
☐ 이용방법이 까다롭다.
☐ 전자책의 종류 및 종수가 부족하다.
☐ 아직은 종이책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II. 다음은 전자책(e-book) 서비스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공공도서관의 전자책(e-book)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읽어 보신 후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이용자에게만 회원증의 회원
번호를 통해 '전자책도서관'에 로그인 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1) 전자책도서관의 '내 서재(개인서가)'로 3~5책을 3~7일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 2) 대출 전자책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3) 반납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어, '내 서재'에서 사라집니다.
- 4) 작품에 대한 소개 및 서평, 목차보기 등이 가능합니다.
- 5) 글자(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및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습니다.

14. 귀하는 도서관의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예 ☐ 아니오

15. 도서관의 전자책(e-book)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16. 귀하가 전자책(e-book)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한 곳에만 체크)

- _____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에 상관없이 대출 및 반납 가능
- _____ 음성 및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
- _____ 작품소개, 서평, 목차보기 가능
- _____ 도서관회원에게 무료서비스 제공
- _____ 기타 ()

17. 귀하가 전자책(e-book)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한 곳에만 체크)

- _____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 _____ 대출권수가 적고 대출기간이 짧다.
- _____ 원하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 _____ 이용방법이 까다롭다.
- _____ 기타 ()

18. 전자책(e-book) 이용이 종이책 이용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편리
1	2	3	4	5

19. 귀하가 전자책(e-book) 이용이 종이책보다 불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_____ 전자책 소프트웨어 사용법이 복잡하다.
- _____ 아직까지는 제공되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 _____ 시각적으로 책 읽기가 불편하다.
- _____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 _____ 기타 ()

Ⅲ. 다음은 전자책(e-book) 콘텐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가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이용하신다면, 어느 분야의 콘텐츠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 소셜 등 문학 분야
☐ 동화 등 어린이 분야
☐ 외국어 및 수험서/자격증 분야
☐ 취미/스포츠 분야
☐ 컴퓨터/인터넷 분야
☐ 기타 ()

21. 귀하가 이용하신 전자책(e-book)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2. 앞으로 전자책(e-book)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웰빙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확충
☐ 취업 및 창업 정보에 대한 콘텐츠 확충
☐ 신간 및 베스트셀러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 수험서 및 자격증 분야의 콘텐츠 확충
☐ 동화 등 어린이 분야의 콘텐츠 확충

Ⅳ. 다음은 전자책(e-book)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는 전자책(e-book) 이용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십니까?

전혀 모름	모름	보통	대체로 알고 있음	확실히 알고 있음
1	2	3	4	5

24. 귀하가 전자책(e-book)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고 있으십니까?

- _____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_____ 도서관 소식지 및 안내문, 팸플릿 등을 통해서
 _____ 사서 및 도서관 직원들을 통해서
 _____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_____ 기타 ()

25. 귀하는 도서관의 전자책(e-book) 홍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6. 전자책(e-book)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도서관 소식지 및 안내문, 팸플릿
 _____ 이용교육 및 세미나
 _____ 동영상 및 비디오제작
 _____ 사서 및 도서관 직원들의 직접적인 홍보
 _____ 기타 ()

27. 귀하는 앞으로 전자책(e-book)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없다	보통	대체로 이용	적극 이용
1	2	3	4	5

◎ 설문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Use Improvement of e-book Service in Public Library

- Focus on Public Libraries in the Gangbuk Area in Seoul -

Shin, Eun Ju
Major in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Libraries need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media and services for searching information more inexpensively and more quickly, and serving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e-book as a new medium for information service in libraries, and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of e-book services, which are adjusted to convenient use of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public libraries local important information center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arious methods for using e-book services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For performing this purpose, we analyzed current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related with e-book, and tried to find out

methods for increasing e-book's efficiency and its use through making up a questionnaire for users to public libraries in the Gangbuk area in Seoul.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the rate of using e-book services is 34%, which is greatly low, compared to about 89% of the rate of recognizing e-book. This means that the more frequently users visit a library, the higher degree of recognition and use of e-book services. Thus, we knew that the promotion of library use is directly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e-book services.

Secondly, only about 18% of the respondents are satisfied with the e-book services, which means most of library us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m. 6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main reason is lack of the contents. And, the rate of satisfaction with e-book contents in public libraries was examined greatly low about 9%.

Thirdly, among the answers to the question about the reason for not using e-book services, 32% answers said that they don't feel the necessary of e-book services, and about 31% answered that it is still convenient for them to read the paper book than e-book. From these results, we can analyze that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increase library users' closeness to e-book.

Fourthly, about 41%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found out how to use e-book services through homepage of libraries, whereas only about 7% got information of the way to use e-book services by librarians and staffs. This means libraries' own PR of libraries about e-book are highly insufficient.

Fifthly, most of about 41% respondents have intention to use

e-book services provided by libraries, which seems to have desirable influence to increase the use of e-book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se analysis, the recommendations for promotion of e-book services can be drawn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he development of an unified technological format and viewer in order to eliminate inconveniences in using various technological formats. On the other hand, e-book publishe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developing a handy terminal in order to increase library users' closeness to e-book.

Secondly, companies related with e-book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developing more various contents,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support policy for the wide extension of information.

Thirdly, it is necessary for content-developing companies to build a system of cooperation along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for developing various conten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velop contents for various fields, to distinguish degrees of importance of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and to study proffer of distributional and selectional inform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for librarians to make off-line advertisements by library newsletters and brochures, along with on-line advertisements like the one -click function of direct visit to digital libraries. It is desirable to make it possible for related web sites of village libraries, ward offices, and culture centers to provide one-click contact to e-book services through the function of direct visit to e-book services at public libraries.